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문열 소설의 군중과 권력 연구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영 숙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문열 소설의 군중과 권력 연구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남 석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영 숙

송영숙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목 차

영문요지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4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1

Ⅱ. 군중과 권력의 이론적 개념 ····· 15

1. 군중과 권력의 상관성 ····· 15

2. 군중과 권력의 이론 ····· 18

1) 귀스타브 르 봉의 '심리적 군중' ····· 18

2) 엘리아스 카네티의 '권력 개념' ····· 21

3)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 24

Ⅲ.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권력과 군중의 양상 ····· 27

1. 절대적인 힘과 순응 -「들소」 ····· 27

1) 힘으로 형성한 절대 권력자 ····· 28

2) 순응하는 군중 ····· 32

2. 민주지향과 저항 -「칼레파 타 칼라」 ····· 39

1) 민주적으로 형성한 절대 권력자 ····· 39

2) 저항하는 군중 ····· 41

3. 이중적인 구조형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47

1) 이중적인 절대 권력자 ····· 47

2) 이중적인 군중 ····· 52

Ⅳ.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군중과 권력의 의미 ····· 58

Ⅴ. 결 론 ····· 74

참고 문헌 ····· 7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The Study of Crowd and Power of Lee Moon Yeol's Novels

- Concentrating on 「A wild ox」, 「Kalepa ta cala」, 「Our twisted hero」 -

young sook S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mainly about three novels by Lee Moon Yeol, which are 「A wild ox」, 「Kalepa ta cala」, 「Our twisted hero」, focusing on the crowds and aspects of power described in the novels above. As a result of careful examination on the research work done to the novel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re wasn't enough detailed study on the reactions of a crowd when confronted by power. The relation between crowds and the power were just merely mentioned on commentaries and brief reviews. Therefore, this study is carried out on the relation of crowds and power appeared in Lee Moon Yeol's novels with more depth and detail. The reason for choosing these three specific works is because all three of them have themes related to crowds and power. Also, the various aspects of crowds and power according to different times and settings are portrayed in the novels with excellence.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rowds and power in these three novels, this thesis has used Gustave Le Bon's concept of psychological crowd, Canetti's concept of power and Rene Girard's concept of scapegoat as theoretical methods.

The three novels has been dealt in the order of 「A wild ox」→「Kalepa ta cala」→「Our twisted hero」to have a look into the changes of power and crowds revealed in the works. First of all, 「A wild ox」 is set in prehistoric times, when strength was the core to everything, so it is only natural to view power and the ways of a crowd corresponding in a standpoint where strength is the main ruling principle. In this novel, 'Snake-eyes' who seeks absolute power, pursues strength as a means of getting power. This strength is distinguished through wild ox hunts in a primitive society setting. To the strength of 'Snake-eyes', 'Storyteller' and 'Prairie Flower' was submissive, but 'Fearful of the Ox' chose not to adapt to the system and took off. However, the crowd, as a whole, adjusted to strength in a power-driven

organization.

In 「Kalepa ta cala」, the crowd and power is viewed in a society where freedom and reason is the main principle. Tiranatus, who obtains absolute power by democratic methods, pursues freedom and reason opposed to oppression and control. The crowd, who becomes used to this society, doesn't want their freedom and safety to be threatened. So the citizens of Atherta fight back against the oppression in order to keep the freedom and the safety. But because of their immature consciousness as a crowd, they fail to judge right from wrong and they are easily convinced. As a result, they let their own country per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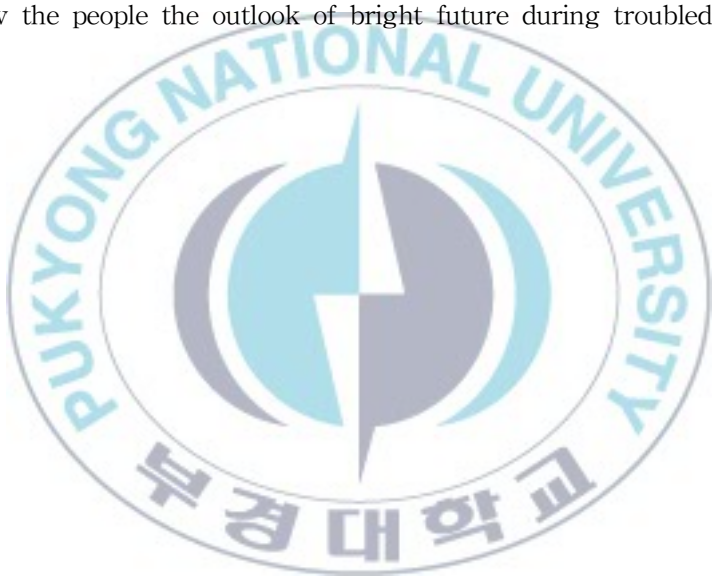
「Our twisted hero」is set in a dual society where it is dominated by both strength and knowledge. Um Suk Dae, who is the man of power in this novel, combines strength and knowledge and shows two different sides of absolute power. Han Byung Tae and rest of the children, who symbolizes the crowd, also react to the power diversely by resisting and adapting or by adapting and resisting. Han Byung Tae defies Um Suk Dae's absolute power, but in the end takes an yielding stand with the reality for survival. On the other hand, rest of the classmates submit themselves completely to the authority. But when another authority appears that overpowers Um Suk Dae, the children take a bold turn and resist to Um Suk Dae power, eventually showing different sides of a crowd corresponding to various types of powers.

Following this, the trace of crowds and power being made scapegoats by violence, which appears in all the three novels, is described. The characters from the three novels, 'Loud Voice', Tiranatus, and Um Suk Dae, are all scapegoats sacrificed by crowd and power. 'Loud Voice' is made a scapegoat by 'Snake Eyes' who chose to sacrifice him to gain absolute power. This is an example of the crowd made scapegoat by power. Tiranatus sacrificed himself to keep the freedom and safety of the citizens from oppression. This is a case of power sacrificed by the crowd. Um Suk Dae is made a scapegoat by the teacher who wanted to restore his authority and by the children who turned their back on him when the right opportunity came. This is a case of pre-existing power being sacrificed by the crowd and the new power. Therefore, these scapegoats are all victims of the unceasing desire and violence of human beings.

If you have a look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crowds expressed in the three novels, they are afraid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and are not willing to risk their comfort to the dangers that might derive from the change. So, they willingly submit to the reality even though they think it's not rational. When

they did resist, they couldn't lead the system to a right direction because they were weak minded, ignorant and fee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wds shown in the novels portrays Lee Moon Yeol's own thoughts of class-consciousness. Lee Moon Yeol once said that being too conscious of politics is worse than having no interest at all. He said the bigger the group who is indifferent to politics gets, the stability of politics grows. It seems that due to such views the author incapacitated people from resisting to unjust power.

There is no doubt that Lee Moon Yeol's novels have a prominent statu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ut if he keeps his confined views on crowds he will not be able to give prospects as a writer. Writers, as intellectuals, should show the people the outlook of bright future during troubled times



Ⅰ. 서 론

1. 연구목적

문학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모습을 언어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다. 자연만을 노래한 시는 있어도 자연만이 등장하는 소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소설은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의 문학이다.[1]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며, 그 핵심은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삶의 의미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며, 소설의 예술적 가치는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기술 여하에 따라 판가름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의 보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등장인물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발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독자를 직접 설득하기 보다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독자를 납득시키고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문열은 그 어떤 작가보다도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문열은 1977년 대구매일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나자레를 아십니까」가 입선되고, 1979년 중편소설「새하곡」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등단 이후 지금까지 놀란 만큼 수많은 소설들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 작품들이 출판되는 즉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 그런 그가 『영웅시대』(1984)를 끝으로 돌연히 3년간의 절필을 선언했다. 침묵의 절필기간이 끝난 후, 그는 1987년 『구로아리랑』을, 곧이어 『익명의 섬』과 『변경』등을 출간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공한 소설가의 한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현존하는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란 상은 거의 모두 수상[2]하였다는 점은 그의 높은 예술적

1) 이상우,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5, 119면.

2) 이문열은 1979년 『사람의 아들』로 제3회 '오늘의 작가상', 1982 「금시조」로 제15회 '동인문학상', 1983년 「황제를 위하여」로 제3회 '대한민국 문학상', 1987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제11회 '이상문학상', 「시인과 도둑」 제37회 '현대문학상',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으로 1992년 정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문화상'과 1998년 제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소설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문열이 발표한 소설을 보면 그야말로 현란할 만큼 다양하고, 전문가를 무색하게 할 만큼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소재를 취해 왔다. 종교와 신학, 대학생활, 군대생활, 노동자들의 삶, 고아원의 생활, 감옥생활에서도 소재를 빌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구석기시대의 알타미라 벽화에서도 소설의 소재를 취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 못지않게 그 등장인물 또한 다양하다.[3] 동양과 서양, 고대에서 현대에 걸치는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탁월한 문학적 성과로 인해 많은 독자들에게 찬사와 갈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열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수호자, 우익의 대표, 문단권력의 산실, 여성을 비하시키는 반페미니스트, 심지어는 파시스트라는 거친 비난이 따라다닌다.[4] 특히 이문열이 '보수'라는 꼬리표를 부정적으로 달고 다니는 원인으로는 이문열이 정식으로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하던 1980년대는 우리의 사회 현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한 정치적 권력이 한쪽으로만 집중되었던 독재정권 시대였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민중문학으로 대표되던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문열은 이 진보의 열기에서 한발 비켜서 문학 활동을 했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군부 독재의 기만과 탄압에 대하여,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외세의 지배 매커니즘에 대하여, 분단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여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5] 그러나 이문열은 그 시대의 큰 흐름이었던 그러한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

2회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3) 이문열은 작품의 소재를 취함에 있어서나 인물 설정을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즉 『미로일지』, 『구로 아리랑』 같은 작품이 있긴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소외 계층, 시대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80년대 상승된 노동운동에 대해 이문열도 얼마간 위기의식을 가졌는지 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다룬 『구로 아리랑』을 썼으나 이 작품의 평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그 본질은 노동의식을 폄훼하고, 노동자의 무지와 노동운동을 비꼬기 위해 쓴 냉소적인 작품'이라는 혹평에 가까운 평가이다. (김영, 「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94면.)

4) 권유리야, 「이문열 소설의 식민과 탈식민 연구 - 『시인』, 『영웅시대』, 『변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면.

5) 김미옥, 「이문열 소설 연구 - 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2면.

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민중적인 세계관을 지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이문열은 우리 시대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성공한 작가이지만, 한편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문열이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군중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의 소설 속에서도 많이 드러난다. 그는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 못지않게 군중[6]의 힘도 믿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군중이라는 존재는 마음속에 내포하고 있는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근성으로 인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중은 누가 권력을 쥐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군중의 속성으로 인해 이문열은 그의 소설 속에서 그려내는 군중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이문열 작품에서 그려지는 군중들의 모습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의 작품 곳곳에서 보이는 절대적 가치(역사의 진보, 군중적 세계의 도래, 진리 따위)와 상대적 가치(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폭력이 곧 정의일 수 있다는 따위) 사이의 대립과 갈등[7]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문열이 그의 소설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군중이라는 존재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권력을 앞에 두고 그것을 이용하여 휘두르는 지배자와 또 그것에 지배당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을 때 또 그것을 쫓아 움직이는 군중들의 모습을 이문열의 소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사 검토

그동안 연구된 이문열의 소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분석 논의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등장인물

---

6) 이문열은 '민중'이라는 말과 '군중'이라는 말을 변별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민중과 군중은 그 뜻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중은 어떤 공통의 목적의식과 사회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군중은 옳고 그른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중'의 뜻과 '군중'의 뜻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용어로 '군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겠다.

7) 이우용, 「이문열 연구 - 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무주의자」, 『말』 41, 말, 1989, 158면.

에 대한 분석,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서의 분석,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분석, 문체와 서사기법의 특징의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김경수[8]는 일반적으로 소설 주인공은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갈망과 그가 만나게 되는 무질서한 현실 세계 사이에서 어긋남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긋남의 세계를 부조리한 세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문열 소설은 이러한 어긋남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하였다.

김욱동[9]은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들은 실존주의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가치 체계나 이념에 대해서 일종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외부 세계가 부여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벗어나 참다운 개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문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존주의 철학 위에서 분석하였다.

신동욱[10]은 이문열 소설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유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지식인 군상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되었거나 소외된 층으로써, 시대의 변천에서 따돌려진 장인들이나 소시민들 같은 왜소한 인물들이다.

김태준[11]은 이문열의 중·단편소설들을 대상으로 이문열 소설의 특징을 4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인물의 유형을 정신적 우월감을 고양하는 인물과 하위적 자기 패배의 인물, 실존적 현장의 인물, 세계와 어긋난 문제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서의 분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문열의 유년시절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론하고 있었다.

조영일[12]은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젊은 날의 초상』,『영웅시대』,『변경』의 네 작품은 유년시절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기를 형성하여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방식을 탐구하는 성장소설, 교양소설이라고 하였다.

---

8)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이문열론』, 삼인행, 1991, 146면.
9) 김욱동, 『이문열』, 민음사, 1994, 26면.
10) 신동욱, 「시대의식과 서사적 자아의 실현문제」,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54면.
11) 김태준, 「이문열 중·단편 소설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2) 조영일, 「한국근대 교양소설 연구 - 이문열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셋째, 이문열 소설을 세계관과 창작방법으로 분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유종호[13]는 이문열 소설을 처음으로 낭만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비평가이다. 그는 이문열의 소설을 능란한 얘기꾼의 솜씨와 함께 관념적 성향이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김명인[14]은 이문열의 작품세계를 체제 옹호적이고 보수반동의 성격을 띤 전망부재의 허무주의로 규정하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국민적 인기를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문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정호웅[15]은 리얼리즘 입장에서『영웅시대』를 읽어내고 그 관념 편향적 창작방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관념 편향성을 '이문열 문학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성격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이는 창작 방법상으로 작가의 작품 내 전면개입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창작방법은 리얼리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실의 왜곡과 추상화', '구성의 파탄과 인물의 추상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함을 작품을 통해 입증하였다.

김영[16]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문열 작품과 황석영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영은 언론과 방송에서 이문열과 황석영을 맞세워 거론하는 일이 많아졌음에 이들 두 작가를 비교 연구 할 가치가 있다고 밝히며, 그 연결고리를 이데올로기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이데올로기 기원, 이데올로기의 이정표, 정치권력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 역사 이데올로기, 예술가 소설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이선옥과 송명희는 반페미니즘 시각에서 논의 하였는데, 이선옥[17]은「낭만적 세계관과 여성관의 이원론」에서 영원한 모성이란 남성이 만든 꿈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송명희[18]는 이문열의『선택』에서 장씨부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

13) 유종호,「능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이문열론』, 삼인행, 1992, 62면.
14) 김명인,「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이문열』, 살림, 1993.
15) 정호웅,「관념 편향적 창작 방법의 한계」,『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16) 김영,「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연구 : 이데올로기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17) 이선옥,「낭만적 세계관과 여성관의 이원론 ; 이문열의『영웅시대』,『레테의 연가』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제4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18) 송명희,「이문열의『선택』, 왜 반페미니즘인가」,『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 사상, 2000.

자세는 본받을만하지만,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는 뚜렷한 사건이 없고, 주인공 한사람에 의한 독백조의 서술, 권위주의적이고 논쟁적인 틀, 의고체의 문체, 게다가 시대착오적 여성관을 요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문체와 서사기법의 특징으로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문열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식어가 '능란한 이야기꾼의 솜씨'라고 말한다.

이동하[19]는 이문열의 유장한 문체가 그의 소설을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정미로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박한 미문조의 공허함으로까지 비약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권성우[20]는 이런 능란한 글쓰기 솜씨가 작품 주체의 본질적 목표인 의미영역을 앞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론의 고착적 징후가 보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자동화현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이문열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문열 소설에 대한 인물 연구, 작가의 자전적인이야기로서의 분석, 세계관과 창작방법, 문체와 서사기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인 「들소」, 「칼레파 타 칼라」,「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들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동화[21]는 이문열의 낭만주의는 단순한 기질과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절대에 대한 탐구도 바로 이러한 낭만주의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소설 「들소」에 나타나는 예술지상주의적인 성격의 연원이 조화와 통일을 상실한 현실로부터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는 열망, 즉 낭만주의적 세계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민엽[22]은 이문열이 변혁에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닫아버리고 그로 인해 전망이 결여되어 있는 작가라는 현실 비판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들소」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곧 자신의 개인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미적 충

19) 이동하,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166면.
20) 권성우, 「작가에게 보내는 젊은 비평가의 편지」, 『이문열론』, 삼인행, 1992, 20면.
21) 이동화,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9면.
22) 성민엽,「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칼레파 타 칼라』, 나남출판사, 1985, 303-316면.

동의 순수한 추구라는 모습으로 변형하여 그린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박종홍[23]은 「들소」에서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인 권력과 애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기에 그 허망함을 대신해 심미적이고 초월적인 예술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작가도 그런 인물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남호[24]는 권력과 군중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들소」를 평가하고 있다. 이문열의 작품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지만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먼 다른 방식으로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김미옥[25]은 이문열이 「들소」를 통해서 예술의 효용적 기능보다는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기능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적인 인간에게는 사회적·정치적 가치와는 독립된 스스로의 가치가 있으며, 예술은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완성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김현애[26]는 「들소」에 나타나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형상들은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에 좌우되어 예술(문학)에 획일적인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균형과 조화의 미학을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묵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칼레파 타 칼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민엽[27]은 이문열이 전망결여의 작가라고 칭하면서, 그의 그러한 점은 그가 원초적 상처처럼 가지고 있는 변혁에의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형태의 집단과 조직과 강제와 폭력을 혐오하고 거부한다는 것이다. 「칼레파 타 칼라」는 이러한 이문열의 강박관념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장양수[28]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비극적 결함을 민중의 부정적 속성에 전

23) 박종홍, 「이문열 소설의 권력, 애정, 예술」, 『현대소설연구』 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92면.
24)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김윤식 외, 『이문열론』, 열린책들, 1993.
25) 김미옥, 「이문열 소설 연구 - 낭만성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26) 김현애, 「이문열의 예술가소설 연구 - 「들소」,「금시조」,「시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7) 성민엽, 「젊음의 소설, 그 문학적 의미」, 『바평의 매혹』, 문학과 지성사, 1993.
28) 장양수, 「역사의식의 결여와 민중 모독 - 이문열 중편 「칼레파 타 칼라」의 경우」, 『한국문학론총』 제14집, 한국문학회, 1993, 65-67면.

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문열이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진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홍진[29]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엄석대 체제의 권력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석대 체제의 권력구조가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의 방조, 또는 열렬한 지지에 기반하고 있었음은, 권력의 관계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하였다.

최성은[30]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는 이들 작품들은 각기 '십자군 전쟁'과 '교실'이라는 우의적인 공간을 폴란드와 한국의 시대상을 방영하는 축소판 모형으로 설정하고, 함축과 풍자 속에 시대 비판과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최해수[31]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타니자키 쥰이치로의 「작은 왕국」을 이 두 작품이 지니는 유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이들 두 작품이 화자설정, 작품의 무대, 주변상황, 주인공 설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밖에 몇 몇 소품이나 상황 설정 등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김남석[32]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교실의 권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면서 한병태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병태에게 보이는 네 가지 불신이 한국 현대 정치사를 구경한 우리들에게도 모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세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 어떤 시세에도 온전히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 하나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의지를 꺾은 자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편리하게 책임을 벗어나는 무책임에 대한 불신이다.

---

29) 오홍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 -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과 관련하여」, 『대전어문학』11,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183-212면.

30) 최성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교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제9호, 한국동서비교문학회, 2003, 107-148면.

31) 최해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타니자키 쥰이치로의 『작은왕국』 비교연구 - 두 작품의 유사성고찰을 중심으로」, 『비평문학』제3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349-366면.

32) 김남석, 「교실의 사회학」, 『영주어문』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435-456면.

따라서 우리들에게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가 아니라 오히려 엄석대는 일그러져야 할 영웅이고, 우리에게 진짜 일그러져서는 안 될 인물은 한병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문열의 소설 「들소」에 대한 연구는 낭만적 성향을 띤 예술가적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간혹 권력과 예술의 갈등문제도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군중과 권력의 문제보다는 예술가의 자기완성을 위한 장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그리고「칼레파 타 칼라」에 대한 연구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작가의식을 비판하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연구는 성장소설이라는 측면과 권력에 관한 논의가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도 주로 작품집의 해설이나 문학 계간지에 발표된 단평의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군중이 권력과 연결되었을 때, 그 권력 앞에서 반응하는 군중의 모습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중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권력에 의한 군중의 반응 관계를 작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히 분석하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는 이문열 소설「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권력의 형성과 더불어 그 권력의 움직임에 따른 군중과 권력의 양상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군중과 권력의 상관성 살펴보고, 군중과 권력에 대한 이론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이문열 소설에서는 권력에 의한 군중의 여러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군중과 권력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귀스타브 르 봉, 엘리아스 카네티 그리고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르 봉[33]이 이론적 대상으로 삼은 군중은,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감정과 사상을 초월한 전체로서의 집단 심리를 가진 조직화된 군중이

33)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2005.

다. 르 봉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적으로 조직화된 군중은 어떤 암시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그리고 암시에 걸린 군중은 빠른 속도로 다른 군중을 감염시킨다. 이와 같은 르 봉의 암시성과 감염성은 이문열 소설 「칼레파 타칼라」에서,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던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조직화된 군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르 봉에 의하면, 군중은 '환상'을 갈구한다. 자신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권력이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그 권력자에게로 종속되어, 복종하는 복종성향(服從性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종성향은 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체제에 따라 변하는 군중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카네티[34]는 군중과 권력은 서로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 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느 쪽도 존재가치를 상실해 버린다고 설명하면서, 권력을 주로 원시시대 무리에서 힘의 우위를 통해 살아남음의 문제와 연관시켰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이문열 소설 「들소」에서 힘으로 권력을 형성하려는 권력자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지라르[35]는 인간욕망의 본질을 '삼각형의 욕망'이라는 구조로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삼각형의 욕망'을 통해 소설인물들을 분석하였는데, 인간의 욕망이 폭력과 결합하는 이유는 인간욕망의 궁극점이 권력쟁취라는 문제에 접맥되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치루어지는 희생양의식도 쟁취한 권력의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치루어지는 집단의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문열 소설에서 절대 권력이라고 믿었던 기존의 권력은 더 큰 힘을 가진 새로운 권력과 군중에 의해 폭력으로 전복된다. 이때 가해지는 폭력은 지라르의 이론에 의하면, 기존의 권력자가 행한 나쁜 폭력을 응징하기 위한 선한 폭력에 해당된다. 이는 새로운 권력자가 권력쟁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의식이다. 따라서 이문열 소설에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구조의 인물들은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36]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그 밖에 이문열 소설에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에 대한 연구·분석을 위해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과 몇몇 학자들의 이론 등을 부분적으로 원용할 것이

34)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35)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6.
36)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07.

다.

본 논문 제 Ⅲ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 작품 속에 나타난 군중과 권력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들소」에서는 절대적인 힘의 권력자와 그것에 순응하는 군중의 양상, 「칼레파 타 칼라」에서는 자유와 합리적인 민주를 지향하는 권력자와 저항의식이 강한 군중의 양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이중적인 구조에서의 권력자와 군중의 이중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 제 Ⅳ장에서는 이들 세 작품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존재하는 폭력에 의한 희생양을 살펴보고, 또한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에 대한 이문열의 인식태도와 그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 세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 작품이 모두 군중과 권력을 소설의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들 세 소설은 시대를 달리하는 배경에서 군중과 권력의 모습이 각기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통해 이문열이 생각하는 군중 의식을 밝혀내고, 또한 이문열 작품에 드러나는 인물유형을 보다 깊이 있고 상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군중과 권력의 이론적 개념

1. 군중과 권력의 상관성

권력은 인간이 무리를 지어 역사를 이룬 이래로 항상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 권력은 무리위에서 항상 군림하기 위해서 또는 그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피지배자에 속한 군중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갖가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여 존재해 왔다.

군중과 권력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 중의 하나이다. 군중과 권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그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먼저 군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카네티는 군중의 기원을 찾기 위해 무리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다. 그는 인간 세계에 무리가 생기게 된 기원이 동물들의 본보기, 즉 떼를 지어 사냥을 하는 동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인간 무리는 군중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는 것이다.[37] 가브리엘 따르드는 군중을 이원화하여 두 단계로 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의 군중은 자연발생적이고 초보적인 무정형의 결합이지만, 이것은 일련의 중간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조직화되고 위계를 갖춘 영속적이고 질서정연한 인위적 군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38] 블루머는 군중의 유형을 모이게 된 동기와 관심에 따라 나누었는데, 그것은 우연적 군중, 인습적 군중, 표현적 군중, 능동적 군중 등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39]

다음으로 권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베버는 권력이란 '어떤 사람의 의지(意志)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권력의 유형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40] 러셀은 권력이란 '기획된 효과의 조성'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였으며,[41] 갈브레이드는 권력을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자

37)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127면.
38) 세르주 모스코비치, 이상률 역, 『군중의 시대』, 문예출판사, 1996.
39) 현승일, 『사회학』, 박영사, 1989, 275면.
40) 막스 베버, 금종우・전남석 역, 『지배의 사회학』, 한길사, 1991.
41) 버트란트 러셀, 안정효 역, 『권력』, 열린책들, 1988.

신의 의지 내지는 목적을, 그것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장악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도구로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조건적 권력이 있으며,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 및 특성에도 인격, 부, 조직의 세 가지가 있다고 정리한다.[42] 뮐러와 할더가 편찬한 『철학 소사전』에 의하면 권력은 '살아 있는 자연과 생명이 없는 자연에서 필연적인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는 힘과 반대되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조건들과 역사적인 조건들 아래서, 스스로 계획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즉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43] 그리고 카네티는 권력 형상을 주로 살아남음의 문제와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 그는 '모든 권력은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한다.[44] 이처럼 군중과 권력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력은 억압적이고 소수의 특권계층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관료제 사회 속에서 권력은 폭력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군중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금의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는 과거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던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현대 관료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이나 제도로서 군중에게 그 권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권력은 각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변신하여 군중을 지배해 왔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규율' 또한 그러한 지배의 한 방법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훈육된다. 이 과정을 푸코는 '규율'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때 규율이란 단순이 규칙에 따르는 것 이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고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규율은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의미의 은폐된 권력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배자의 강제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사실상 사취나 강제 대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많이 사취하기 위한 방법

42) 존 K. 갈브레이드, 정성호 역, 『권력과 정치』, 우석, 1984.
43) 막스 뮐러 · 알로이스 할더, 강성위 역, 『철학 소사전』, 이문 출판사, 1994, 32-33면.
44)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 · 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301면.

이다.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 이러한 은폐된 모습의 권력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전체로서 굴복하게 만드는 대신 교묘하게 은폐된 힘으로 따르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훈육에 의해서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규율이다.[45]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인간을 규율하는 수많은 규율장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이 그물망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이러한 그물망을 작동시키는 기제가 바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권력이다. 따라서 권력은 특정 사회집단 혹은 계급의 실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편제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절대 자유'를 꿈꾸면서도 또한 초월적인 권력자, 또는 전지전능한 권력자를 갈망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한 와중에 무수히 많은 '굴절된 권력자', 혹은 '일그러진 권력자'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스러지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자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군중들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군중과 권력은 서로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 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느 쪽도 존재가치를 상실해 버린다.[46]

모든 권력자는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자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소멸되고 만다. 그리고 또 다른 권력자가 그것을 승계한다. 따라서 군중은 권력을 표현하는 자에게 주목하지 말고, 권력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2. 군중과 권력의 이론

1) 귀스타브 르 봉의 '심리적 군중'

르 봉은 군중이 충동적이고 유동적인 동시에 불가능을 모른다고 분석한

45)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6, 267면.
46) 최성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교연구」, 앞의 책, 116면.

다. 또한 그는 군중이 드러내는 감정은 심리적으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과장된 이중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과격한 감정 쪽으로만 쉽게 끌리며, 편협하고, 불확실성이나 애매한 것을 모르고 무엇이든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절대적 오류로 판단해버린다는 것이다.[47]

르 봉이 이론적 구명의 대상으로 삼는 군중은 '군중의 정신일치에 관한 심리법칙'에 의해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감정과 사상을 초월한 전체로서의 집단 심리를 가진 군중, 즉 '조직화된 군중' 또는 '심리적 군중'이다. 그에 의하면 단지 다수의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 우연히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곧 조직화된 군중이 되지 않으며, 우연한 개인의 집합이 조직화된 군중으로 되려면 어떤 유인(誘因), 즉 암시가 작용해야 되며,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은 분산된 개인들도 어떤 유인의 작용을 받으면 조직화된 군중의 특성을 갖는다.

르 봉은 이 같은 조직화된 군중의 특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는 야만성으로,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이 수적인 요인만을 생각한 나머지 수적인 힘을 믿고, 또 여러 사람 속에서 행동한다는 익명성 때문에 혼자 있을 때에는 억제했었던 본능을 마구 발산하여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감염성으로, 암시에 의해 조직화된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성을 지닌다. 감염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빠른 속도로 다른 군중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비판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독립된 의지와 단절된 자동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피암시성으로, 군중을 구성한 개인들이 주어진 암시에 따라 가볍게 행동하여 마치 모래더미의 모래알 같이 바람결에도 맥없이 흩날리는 것을 말한다.[48]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군중은 막강한 위력을 발하기도 하는 동시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이 르 봉의 견해이다. 그는 또 군중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군중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여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파괴적 행동을 하여 범죄적 존재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47)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59-79면.
48) 위의 책, 50-51면.

것은 군중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에 미치는 암시의 성격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군중은 이 암시 또는 유인의 성격과 효과의 여하에 따라서 가장 살벌한 잔인성에서, 가장 극단적인 관용 또는 영웅주의로 순식간에 변해버리게 된다. 즉 군중은 범죄적일 수도, 도덕적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극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49]

르봉은 또 군중은 뭐든지 쉽게 믿어버리고, 그들은 심리적으로 지극히 단순하고 과장적이라고 분석한다. 군중은 사물을 볼 때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환기된 이미지를 보게 되며, 이성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 판단한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과 허구를 식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중들 사이에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쉽게 날조되고 믿어진다. 이것이 군중의 상상력과 뒤범벅이 되어 제멋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것도 군중의 집단적 환각상태 하에서 진실한 것이 되어버린다.[50]

또한 군중은 환상에 의해 지배된다.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외면해버린다. 자신들을 부추켜 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든다. 군중은 곤충이 본능적으로 불빛을 찾아 날아가듯이 환상을 갈구한다. 그들에게 환상을 제공하면 누구나 그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의 환상을 깨려들면 누구든지 희생의 제물이 된다. 그런 탓으로 국민 대중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희생시킨 독재자라 하더라도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군중을 계속 지배하는가 하면, 국민의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민주주의자라 하더라도 환상을 제공하지 못하면 군중으로부터 외면당한다. 이러한 군중의 얄팍한 속성만 잘 파악하면 권력자는 얼마든지 군중을 독재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51]

이러한 군중의 성질로 인해, 군중은 파괴적이기는 하나 혁명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보수적인 본능을 갖고 있으며, 그러나 동시에 군중은 고도의 자기희생성을 갖기 때문에 유인이 주어지기에 따라서는 고도의 도덕성과 역사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2) 엘리아스 카네티의 '권력 개념'

49) 위의 책, 59면.
50) 위의 책, 157-159면.
51) 위의 책, 166-169면.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은 서로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편이 결핍되면 나머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군중과 권력의 기원을 찾기 위해 먼저 무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인간은 고립상태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군중 속에 놓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다. 이는 무리를 지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온 인간의 '군중심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와 집단을 이루며 공동체 안에서 삶을 유지해 온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무의식중에 그것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무리의 군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군중의 속성에 대해 카네티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52]

첫째, 군중은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한다. 군중의 성장에는 원래부터 한계란 있을 수 없다. 군중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세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설령 인위적으로 어떤 한계를 설정한다 해도 군중의 분출현상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일어난다. 군중의 성장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제도란 있을 수 없다. 성장하려는 욕구, 이것이야말로 군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둘째, 군중의 내부에는 평등이 지배하고 있다. 이 점은 절대적이며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군중 자체조차도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점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을 절대 평등의 상태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군중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평등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평등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의를 위한 모든 요구와 평등에 관한 모든 이론은, 군중의 일원이 되어본 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평등의 실제적 체험에서 그 에너지를 얻는다.

셋째, 군중은 밀집 상태를 사랑한다. 군중에게 과밀(過密)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군중의 내부 틈새로 끼어들거나 군중을 갈라놓을 수 없다. 모든 것은 군중 그 자체이어야 한다. 밀집감은 구속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가장 강하다.

넷째, 군중은 하나의 방향을 필요로 한다. 군중은 항상 동적이며, 어떤

52)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36-37면.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인 이 방향은 군중의 평등감을 강화시킨다. 개개 구성원의 바깥에 존재하며 전원에게 공통인 이 목표는 군중 자체에 치명적인 모든 상이한 개인적 목표들을 땅 밑으로 쫓아낸다. 군중의 존속을 위해서는 방향이 필수적 요소이다. 군중은 늘 와해를 두려워하므로 어떤 목표라도 받아들이려 한다. 군중은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항상 존재한다.

카네티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군중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전'이라고 말한다. 방전이 일어나기 전의 군중은 본질적으로 군중이 아니며, 방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군중이 생성된다. 방전의 순간에 군중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 간의 차이를 제거하고 평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53] 방전의 순간이 사라지고 나면 군중은 각자의 소유물과 자신들에게 딸려 있는 권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결속체를 형성한다.

한편 카네티는 권력 형상을 주로 생존의 문제와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 카네티에 의하면, 무리를 형성해온 인간은 긴 세월 동안 무리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주변 인간들에 비해 강해야 했으며, 강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힘은 생존의 경쟁에서 권력의 우위에 서게 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권력은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살아남기 투쟁에서 모든 인간은 타인의 적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 혼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힘의 자각은 어떠한 비통보다도 강하다. 이 같은 힘의 자각은 똑같은 운명을 나눠 가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자신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은 살아남는 자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느낀다. 따라서 카네티는 살아남는 순간이야말로 권력의 순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자는 상대방을 손아귀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남는 순간은 일종의 쾌감이며, 권력의 순간이다.[54]

이처럼 모든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생존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존재하고 싶어 할 뿐만 아

53) 위의 책, 20면.
54) 위의 책. 301-303면.

니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 자기만은 존재하고 싶어 한다. 세계역사상 권력자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자이다.[55]

카네티는 권력이 폭력보다도 더 일반적이고 행사되는 공간도 넓으며, 더욱 포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권력과 폭력의 관계를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 발톱으로 쥐었다가 결국 죽일 때는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고양이가 귀를 가지고 놀 때는 다른 요소가 나타난다. 고양이는 귀를 얼마쯤 도망치게 버려두기도 하고 쥐에게서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이때는 쥐가 폭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쥐가 고양이의 권력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으며, 쥐는 다시 고양이에게 잡힐 수도 있다. 만일 쥐가 그 테두리를 뛰쳐나오면 고양이의 권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잡힐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 권력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고양이가 지배하는 공간, 고양이가 쥐에게 허용하는 희망의 순간들, 그러나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면밀한 감시와 해이해지지 않는 관심, 그리고 쥐를 죽이려는 생각. 이것을 모두 합친 것, 다시 말하면 공간, 희망, 빈틈이 없는 감시와 파괴적인 의도를 권력의 실체, 좀 더 단순히 말하면 권력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다.[56]

이러한 권력과 폭력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조직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조직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머물러 있으며, 조직의 규율을 어겼을 경우 대가라는 폭력을 수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의 권력과 타협하고 그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지라르는 소설 속에 나타나는 중심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그 인물들의 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욕망의 구조를 밝혀낸다. 지라르는 소설의 인물들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주체의 욕망이 제삼자인 중개자의 욕망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 곧 하나의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은 그 대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55) 위의 책, 657면.
56) 위의 책, 379면.

가 아니라, 대상을 욕망하는 제삼자인 중개자의 욕망에 자극되어 대상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다.[57] 이처럼 매개된 욕망은 욕망주체와 욕망대상 사이에 욕망의 중개자가 존재하는 '삼각형적인 욕망'의 구조도식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서 주체자의 욕망은 중개자라는 모델의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체자의 욕망은 모방된 욕망이며, 이러한 현상은 '욕망모방'이다.

끝없는 욕망모방은 그 중개자가 욕망주체와 가까운 사이에 있을 때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는 은연중에 경쟁관계가 생겨나면서 질투, 원한, 선망과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낳게 된다. 이렇듯 너무나 가까워서 욕망주체의 분신과도 같은 중개자를 지라르는 '짝패(double)'라고 부른다. 이 짝패는 욕망주체의 욕망을 생겨나게 하는 욕망의 유발자인 동시에 그 실현을 막는 경쟁자 혹은 방해자로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방해자인 이 짝패 때문에 인간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짝패 갈등은 소유욕이 강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 폭력의 문제와 연관된다. 짝패 갈등에서 빚어진 폭력은 보복을 수반하면서 끝없이 계속 모방된다. 결국 욕망모방처럼 폭력도 모방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폭력모방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한 것이 바로 '희생양제의'라는 문화적 장치라고 지라르는 말한다.[58]

지라르는 종교적 제의에서 행하는 희생제의라는 것을 신의 뜻에 따라 희생물을 신에게 바쳐서 신의 은총을 받는 장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속에 드러나 있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가 마침내 분출하려 하는 폭력을, 집단 외부의 대상이나 아니면 복수에 휘말릴 염려가 거의 없는 희생물이라는 집단 내부의 특정한 대상에게 분출시킴으로써, 내연하고 있던 갈등과 폭력을 없애고 다시 질서와 평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적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59] 이것은 '폭력을 속이는 폭력'으로 바로 희생제의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다.

이렇듯 인간욕망이 폭력과 결합되는 이유는 인간욕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권력쟁취라는 문제에 접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해지는 희생양의식도 쟁취한 권력의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57)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앞의 책, 494면.
58) 위의 책, 495면.
59) 위의 책, 498-499면.

집단의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60]

60) 오홍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 -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과 관련하여」, 앞의 책, 187면.

Ⅲ.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권력과 군중의 양상

이문열의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세 작품은 권력과 군중의 양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있다. 「들소」에서는 힘의 우위가 곧 권력이 되는,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체제에서의 권력자와 군중의 양상, 「칼레파 타 칼라」에서는 권력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획득되어 합리적인 지식이 적용되는 체제에서의 권력자와 군중의 양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힘과 민주적인 방법을 교묘하게 병행하는 힘과 지식의 이중적인 체제에서의 권력자와 군중의 양상이 나타난다.

1. 절대적인 힘과 순응 - 「들소」

「들소」는 이문열이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소재를 얻어 1979년에 발표한 소설로 그 시대적 배경이 신석기시대이다.[61] 선사시대 처음으로 권력과 사유(私有)라는 것이 생성되면서, 그러한 새로운 권력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인물들이 그것에 반응하며, 갈등하고 순응해 나가는 여러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의 사회 모습은 집단으로 사냥을 하고 그것을 혈족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모두 혈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사회에서도 아직 눈에 보이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권력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힘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다.

> "우리 혈족이 가장 존경하는 것은 용감한 전사(戰士)와 날랜 사냥꾼이다."[62]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

61)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에 대해 사학자들은 그것을 구석기 문화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권력과 사유(私有)의 발생을 그리기 위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신석기 문화로 꾸몄다.

62) 이문열, 「들소」,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1992, 222면.

인 동시에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63]

여기서 알 수 있듯 들소는 혈족들에게 식량이면서 동시에 힘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소를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센 용감한 전사가 강한 남자로 추앙을 받는다. 그리고 들소 사냥을 통해 '이름 얻기'가 행해진다거나, 사냥에서 공을 많이 세운 자가 원하는 여자를 먼저 취할 수 있다는 것에서 들소는 힘을 얻기 위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힘은 곧 권력이다.

1) 힘으로 형성한 절대 권력자

카네티는 권력 형상을 주로 살아남음의 문제와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 그는 '모든 권력은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살아남는 순간이야말로 권력의 순간이다. 살아남은 자는 상대방을 손아귀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을 수도 있으며,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전리품으로 보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살아남는 순간은 일종의 쾌감이며, 권력의 순간이다.'라고 정의한다.[64] 이러한 그의 정의는 살아남음의 문제, 곧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힘의 겨루기에서 그 우위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는 자가 곧 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들소」에서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자는 '뱀눈'이다. 그는 힘 있는 자만이 모든 풍요를 갖게 된다는 것, 즉 힘이 곧 권력임을 깨닫는다. 힘이 권력이 되는 체제에서 권력을 욕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체제가 요구하는 힘의 주체가 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뱀눈'은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구축한다. '뱀눈'은 권력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 지금 현재 힘을 가진 자와 군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뱀눈'이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족에서 힘의 상징인 들소 사냥을 통해 자신의 힘을 그들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곧 들소를 향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

63) 위의 책, 225면.
64)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301면.

결국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란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 큰아버지들에게는 '뱀눈'의 용기와 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다.

… 중략 …

그런데 그 후 오래오래 기억된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때껏 그 바위 위에서 시키지도 않은 그 사냥의 지휘를 맡고 있던 '뱀눈'이 갑자기 뛰어내리더니 곧장 들소에게 달려가 그 날카롭고 긴 뿔을 잡았다. 소는 거칠게 떠받는 자세로 고개를 들었다. 일순 '뱀눈'의 몸이 가볍게 들먹했다. 그러다 이내 소의 목은 '뱀눈'의 힘에 눌려 꺾어지듯 힘없이 아래로 처졌다. 그걸 보며 한 손을 뺀 '뱀눈'은 돌도끼로 소의 정수리를 힘차게 내리쳤다. 소는 움찔하더니 부르르 사지를 떨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멀리서 보기에는 눈부신 '뱀눈'의 활약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보았다. '뱀눈'이 뿔을 잡기 전에도 이미 소의 무릎은 몇 번이고 맥없이 꺾어지고 있었다. 번들거리는 두 눈에 짙게 어려 있는 것도 분명 꺼져가는 생명의 고뇌였다. '뱀눈'이 안전한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확인한 후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뱀눈'이 누린 영예는 대단한 것이었다. 세 번의 성년식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한 '뿔을 누른 자'란 칭호를 받았던 것이다.[65]

이렇게 위험 속으로 자신을 노출시킨 '뱀눈'은 이제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의 용맹성과 힘을 군중들에게 표출시킨다. 그러나 '뱀눈'이 뛰어든 위험은 그의 간교한 계산에 의한 설정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확보한다. 그리고는 위험이 다가오는 모든 징후들을 관찰하고 계산한 후,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노려 교묘한 방법[66]으로 다 죽어가는 들소의 정수리를 내리쳐 들소를 죽임으로써, '뿔을 누른 자'라는 영광스런 칭호를 얻게 된다. 이제 '뱀눈'은 혈족에서 힘이 센 용감한 전사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뱀눈'은 자신의 권력 욕망을 지향하기 위해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큰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 해서, 결국 이들 집단의 힘의 분배에서 우위에 존재하는 자로써, 권력을 형성하는데 점점 다가가게 된다.

'뱀눈'은 전사로서 용맹을 떨치며 점점 막강한 힘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65)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26-228면.
66)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308.

그의 힘은 간교한 꾀로 얻은 첫 번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동배(同輩)나 연상의 용사들과 모종의 협상으로, 사냥에서 그들의 공로를 '뱀눈' 자신에게 양보하게 하여, 자신의 공로가 점점 부각되게 하는 식의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점점 막강한 힘을 키워 나가던 '뱀눈'은 이제 자신의 욕망인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사제자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려 한다. '뱀눈'은 자신이 형성한 절대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군중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제자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 "이제 혈족들을 이끄는 것은 우리들의 세대다. 나와 몇몇 동지들은 모든 용사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기에 충분한 힘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너희들은 이 동굴의 주인이 되었다. 남은 것은 너희들의 목소리나 그림과 우리들의 뜻을 일치 시키는 것이다.
>
> … 중략 …
>
> 우리를 신뢰해 달라. 우리에게 협조해 달라. 대신 나와 내 충실한 동료들은 약속한다. 앞으로 너희들은 지금껏 받은 그 어떤 대우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혈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너희들을 우러르게 될 것이고, 이 동굴은 언제나 최상의 고기와 과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67]

혈족을 지배하게 된 '뱀눈'은 권력을 내세워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제자와 동굴 안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에게 자신의 권력 속으로 편입하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사제자는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뱀눈'의 권력이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군중들을 움직일 목소리로서 필요한 존재이며, 동굴 안의 기능공들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더 튼튼하고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 줄 존재로서 필요한 것이다. '혈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너희들을 우러르게 될 것이고, 이 동굴은 언제나 최상의 고기와 과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뱀눈'의 말에서 만일 자신의 권력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사제자인 '큰 목소리'는 '뱀눈'의 권력 속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며 저항한다. 오히려 '큰 목소리'는 '뱀눈'의 음모와 그의 권력의 부당함을 외친다. 이에 '뱀눈'은 '큰 목소리'를 교묘하게 번갯불을 맞아 죽은 것처럼,

---

67)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54-255면.

불에 그을려 살해한다. 그리고는 마치 하늘의 천벌을 받아 죽은 것처럼 군중들에게 선포한다.

> “하늘은 자기의 목소리를 왜곡한 자에게 징벌을 결정하셨다. 위대한 조상들의 영혼들이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그에게 번갯불을 날라주었다. 그는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이다.”
>
> … 중략 …
>
> “이제부터 아무도 그를 ‘동배 중의 으뜸’ 이상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그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고 그의 판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68]

사제자의 죽음은 ‘뱀눈’이 군중에게 내리는 일종의 경고였다. ‘뱀눈’은 사제자인 ‘큰 목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다른 군중에게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뱀눈’의 힘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이다. ‘누구도 그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고 그의 판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꾼’의 말에서 ‘뱀눈’에 대한 절대 권력의 힘이 드러난다.

「들소」에서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뱀눈’이 추구하는 권력은 힘이다. ‘뱀눈’에게 있어서 힘은 무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69] 그리고 그 힘은 원시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들소 사냥’이라는 매개를 통해 실체를 드러낸다. 따라서 들소는 ‘뱀눈’에게 힘이며, 곧 권력의 상징이다.

2) 순응하는 군중

인간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체제의 권력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없다.[70] 그 체제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체제 속으로 편입하고자 한다. 이처럼 군중은 지배자가 전제적일수록 그 권력에 철저히 복종하는데, 이러한 군중의 성향을 르 봉은 복종성향이라고 말한다.[71]

---

68) 위의 책, 270면.
69)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302면.
70) 권유리야, 「이문열 소설의 식민과 탈식민 연구 - 『시인』,『영웅시대』,『변경』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28면.

「들소」에서 '얘기꾼'은 체제에 순응적 존재로 권력에 복종하는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힘의 지배체제에서 그 우위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차라리 그 권력에 종속되어 복종하는 쪽을 택하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는 '뱀눈'에게 저항하다 죽은 사제자인 '큰 목소리' 대신에 사제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는 '큰 목소리'처럼 아무런 대가도 없는 진실을 부르짖다 죽는 그런 어리석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뱀눈'의 권력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뱀눈'의 신화나 '뱀눈'을 위한 말만을 읊으며, '뱀눈'의 사제자로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나는 당신들의 사제자로서 최초로 하늘의 목소리를 전한다. 방금 그 목소리는 내 심중에서 속삭였다. 이제 그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기술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우리 혈족은 보다 정연하고 조리 있게 조직되어야 하며, 경험과 직관에만 맡겨졌던 그 기술도 객관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그 모든 것 위에는 가장 용기 있고 슬기로운 '동배(同輩) 중의 으뜸'이 있어 우리를 대신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강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며 풍요와 안락을 확보하게 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그 목소리는 또한 나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묻기를 요구한다. 그 '으뜸 중의 으뜸'으로 여기 선 이 '위대한 자(뱀눈)'가 어떨까고"[72]

그는 혈족들에게 조작된 하늘의 말을 전하여 혈족들을 '뱀눈'의 권력 속으로 끌어들인다. '얘기꾼'은 자신이 내뱉는 말이 진정한 하늘의 목소리가 아닌 조작된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르 봉에 의하면,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채워주면 그것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든다.[73] 이처럼 '얘기꾼'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은 '뱀눈'의 체제에 순응하며 그 체제가 주는 부귀가 중요할 뿐이다.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그림을 그리든 세월(역사)은 제 갈 길을 갈 뿐이야. 우리는 그저 변혁을 느낄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일으키거나 막을 힘까지는 없어. 낡은 신념에 매달려서 이미 밀려오는 것을

71)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203면.
72)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69면.
73) 심동안, 「군중심리 서평」, 『정경문화』196, 경향신문사, 1981, 201면.

막으려 들거나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을 앞당기려고 서두르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야. 그건 이미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문제야…"[74]

'얘기꾼'은 사제자로서 자신은 '뱀눈'의 변혁을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 변혁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뱀눈'의 편에 서서 '뱀눈'이 주는 권력의 보호를 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는 '얘기꾼'의 사제자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잘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얘기꾼'은 '큰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제자이다. '큰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모두 혈족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 있고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는 진정한 노래가 아니고, 그들의 욕망을 표상하거나 주거를 장식해 주는 그림 또한 진정한 그림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사제자가 전하는 모든 행위는 혈족의 이익과 일치하고 자연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야 한다고 여기는 인물이다. 그런 '큰 목소리'에 비해 '얘기꾼'은 조작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혈족을 기만하였다.

따라서 '얘기꾼' 같은 인물은 진리나 진실을 갈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비호 아래 자신의 편익만을 취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군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들소」에서 '초원의 꽃'은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군중을 상징한다. 그녀는 자신의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뱀눈'의 권력에 자신을 위탁하여 그 체제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풍요와 안락을 보장받는다.

"사람은 현란하게 꾸며진 말을 벗기면 모두 저마다의 소를 쫓고 있을 뿐이에요. '뱀눈'은 권력의 소를 쫓고, '달무리'는 그 '뱀눈'이 나누어 주는 부귀의 소를 쫓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쫓는 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풍요와 안락의 소예요. 그리고 '뱀눈'을 좋아한 것은 그가 바로 그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뱀눈' 아닌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면 또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그의 부족은 강성하고, 그의 가축 떼는 들판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74)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74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죠?"[75]

'초원은 꽃'은 '뱀눈'이 싸움에 져 유목민 중에 가장 강력한 부족과 화평을 맺고 그 정표로 부족장에게 보내지게 된다. 이것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행하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이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기 보다는 오히려 치장하며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초원의 꽃'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와 안락'을 줄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르 봉에 의하면, 군중은 환상에 의해 지배된다. 곤충이 본능적으로 불빛을 찾아 날아가듯이 환상을 갈구하며, 그들에게 환상을 제공하면 누구나 그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76] '초원의 꽃'에게 '환상'은 '그녀가 쫓는 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쫓는 소는 '풍요와 안락의 소'이다. 즉 '초원의 꽃'에게 '환상'은 '풍요와 안락함'을 의미한다. 그녀는 '뱀눈'이 이제 자신에게 풍요로운 삶과 안락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권력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족장이라면 그녀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환상을 줄 권력자가 바뀔 뿐, 그들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환상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중은 지배 권력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상만 제공하면 그 권력체제에 편입되어서 순응해가는 군중이다.

「들소」의 주인공 '소를 겁내는 자'는 혈족에서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다. 그는 힘이 주체가 되는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이면서도, 그 체제에 종속되어 순응해 나가는 인물이다. 그는 성년의식의 들소 사냥에서 돌진해오는 소를 피하다가 '소를 겁내는 자'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이 붙여졌다. 그는 사냥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사냥감들을 불쌍해서 의도적으로 놓아 주거나, 차마 찔러서 죽이지 못하는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당시 혈족 사회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우선으로 존중받는 시대였다. 그런 사회에서 사냥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를 겁내는 자'가 천대받는 부류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저의 창날은 사냥감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화살은 항상 빗나가

75) 위의 책, 276면.
76)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168면.

버리는 것 입니까? 어째서 제 담력은 풀숲을 뛰는 토끼보다 못하고 제 머리엔 망상만이 가득한 것입니까? 떨어진 작은 새의 주검이 유독 제게만 슬픔이 되고, 숨져가는 꽃사슴의 눈망울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위대하신 어머니, 진심으로 묻습니다. 혹 자연은 저의 출생을 꺼린 것이나 아닌지요."[77]

'소를 겁내는 자'는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한다. 다른 혈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찌를 수 있는 창날을 자신은 왜 찌르지 못하는지, 다른 혈족들에게는 사냥감인 동물들이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는 자신의 존재 의식에 대해 심각하게 번뇌한다. 그래서 그는 '자연은 자신의 출생을 꺼린 것이 아닌가' 하며 자책하기에 이른다. 연약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가 힘이 우선인 사회체제에 적응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체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응하기 마련이다. '소를 겁내는 자' 역시 그러하다. 그는 힘을 가진 '뱀눈'을 위해 그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 대가로 그가 던져주는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웠다.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반복은 곧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보내준 '뱀눈'에 대한 희미한 복종감으로 변질돼 갔다.

'뱀눈'이 형성한 권력의 체제에서 계급이 발생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해지면서, 그에게도 그의 여자가 정해지고,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체제에 순응하며 여전히 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번 씩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암담한 절망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소를 찾고 싶었다. '뱀눈'에게 봉사하고 얻는 고기로써의 소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의 소를 찾고 싶었다.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너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력(靈力)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化體)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다…[78]

77)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42-243면.

지금까지 그가 추구해 온 것은 '그림 너머의' 혹은 '그림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림은 하나의 종속적 가치로써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새로운 추구의 대상으로 찾아낸 것은 그림 그 자체, 표상된 선과 색의 온전성이 가지는 가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를 잡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정착하지 못하고 혼자서 떠난다. 이미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과 사유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가 떠남으로 해서 남은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는 그의 모습에서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그는 '뱀눈'의 체제에 적응한 듯했지만,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비록 예술가로서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는 그 사회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나약한 인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를 겁내는 자'는 힘이 우선 되는 사회체제에서 그것에 순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체제에 저항하여 변혁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이라는 것을 방패로 그 체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인물이다.

78) 위의 책, 248면.

2. 민주지향과 저항 - 「칼레파 타 칼라」

「칼레파 타 칼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르타'라는 가상적 도시국가가 겪은 역사적 흥망을 그린 소설이다. '아테르타의 비사(悲史)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자유와 합리에 의한 민주적 통치제제를 갖춘 아테르타에서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군중들이 자유와 안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어쩌면 자신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로 인해 봉기와 폭동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어처구니없는 가상적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1) 민주적으로 형성한 절대 권력자

「칼레파 타 칼라」에서 티라나투스는 군중을 위해 자유와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구현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티라나투스가 집권하기 전의 아테르타는 왕과 귀족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왕정(王政)국가였다. 그는 귀족출신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구(舊)제도의 온갖 특권과 혜택을 포기하고 자유와 안전을 갈망하는 시민들 편에 섰다. 그러나 티라나투스와 시민들은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안전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당시 아테르타를 다스리던 왕이 몇몇 보수적인 귀족세력의 도움 아래,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낡은 통치제도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라나투스는 삼년에 걸친 투쟁 끝에 마침내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정을 수립하였다.

> 시민들은 단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그를 첫 번째 집정관으로 뽑았다. 지난날의 특권에 연연해하는 동료들을 설득하고, 오랜 압제에 시달려 무기력하고 겁많아진 시민들을 분기시킨 그의 웅변과, 재빨리 아테네의 원군(援軍)을 끌어들인 외교적인 수완과, 시민군(市民軍)을 지휘하여 근왕병(勤王兵)들을 격파한 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당연한 감사와 보답이었다. 기원전 451년의 일로, 그 뒤 그는 십년간 계속하여 집정관에 머물러 있었다.[79]

79)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칼레파 타 칼라』, 나남출판, 1995, 19-20면.

티라나투스는 아테르타 시민들에게 영웅이었다. 그는 그들을 신분 통제의 오랜 압제로 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시민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주었다. 티라나투스가 해마다 행해지는 선거에서 '십년동안 계속하여 집정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십년동안 그의 민주적 통치체제에 불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그로서는 실로 어이없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발단에 의해 그의 체제가 몰락을 맞이하게 된다. 시민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키고 봉기를 한 것이다. 폭동의 원인은, 그가 신은 굽 높은 샌들 때문에 소피클레스라는 과민한 한 지식인이 '자신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한 마디가 발단이 되어 시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 아테르타의 시민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반(反)티라나투스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반티라나투스를 외치고 있는 그들은 그가 귀족으로서 누려야 할 온갖 특권과 혜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한 그의 시민들이었다. 이제 소피클레스의 말처럼 정말 압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 전보다 더 많은 밀정을 풀어 저항적인 시민들을 감시하게 하는가 하면[80]

이 말은 소피클레스가 '티라나투스가 밀정을 풀어 우리를 감시하는구나'라고 비약한 것이, 정말은 비약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티라나투스는 어떤 의도(작품 속에는 시민들의 폭동이 있기 전부터 그가 왜 밀정을 군중들 속에 심어 놓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로 밀정을 시민들 속에 숨겨 놓았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시민들이여, 잊었는가? 저자가 우리를 압제하던 자,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육하고, 단란하던 보금자리를 불태운 자다. 저자를 죽여라. 정당한 분노의 돌로 저자를 쳐라."[81]

80) 위의 책, 39면.
81) 위의 책, 54면.

자유와 안전을 갈망하는 그들을 위해, 왕정의 오랜 압제로부터 구해준 자신의 시민들에게 티라나투스는 무자비하게 난자당하여 죽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몰락은 굽 높은 샌들에서 비롯되었다. 때로는 인간들의 비약된 사고가 이렇듯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 저항하는 군중

「칼레파 타 칼라」에서 소피클레스는 명문의 후예로서, 사려 깊고 분별 있는 사고력을 가진 지식인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약간의 과민증상을 보이는 소심하고 무책임한 인물기도 하다. 그의 무책임한 말한 마디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아테르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 그런데 최근 그런 그의 신념에 중대한 의혹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생겼다. 며칠전 이스토미아 축전(祝典)때 그는 티라나투스가 이상하게 절름거리는 것 같아 무심코 옆에 사람의 허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
> "저 사람이 정말로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은데,"라고.
>
> … 중략 …
>
> "지금 집정관께서는 굽이 높은 샌들을 신으셔서 걸음걸이가 어색하실 따름이오. 그분더러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에 매수된 그의 정적(政敵)들이 꾸며낸 말이오."
>
> 그 말하는 품은 마치 쫓겨난 옛 국왕의 밀정(密偵)과 같았는데, 더욱 소피클 레스에게 위압감을 준 것은 군데군데, 그와 엇비슷한 사내들이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82]

소피클레스는 배움이 많은 지식인답게 의구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의 성격답게 그는 '옛 국왕의 밀정(密偵)과 같은' 사내를 보면서 '티라나투스가 밀정을 풀어 우리를 감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그의 사고(思考)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걸음걸이가 어색할 정도로 굽이 높은 샌들을 신는 것은 시민들 위에 홀로 우뚝 서고자 하는 티라나투스의 음험한 정치적 야욕으로 느껴지며, 이어서 티라나투스의 '굽 높은 샌들'은 예전 역사 속의 끔찍한 참주를 떠올리게 한다. 마침내 그의 사고는 '혹시

82) 위의 책, 20-21면.

자신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래서 내뱉은 한 마디.

"아테르타 시민이여, 우리는 압제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83]

소피클레스가 외친 이 한 마디에 실패한 정객과 역시 실패한 중년의 비극시인 두 사람이 화답하게 되고, 이어 그들의 화답한 목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일제히 암시에 걸리듯 막연한 동조적 감정에 휩싸이면서, 마침내 아테르타는 시민의 폭동과 봉기에 의해 혼란스럽게 변한다.

이렇듯 과민하고 의구심 많은 지식인 소피클레스의 무책임한 발언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났다. 시민을 광장으로 이끌었고, 폭동자로 만들었으며, 도시의 몰락을 가져왔다. 소피클레스는 자신의 문의(問疑)로 시작된 아테르타의 소요가 어이없는 결과로 끝났을 때, 무력한 자신의 배움과 지식을 스스로 반성하였고, 성숙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의식을 한탄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무책임으로 인해 그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후였다. 그는 '칼레파 타 칼라'라고 중얼거렸다.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피클레스는 오랜 배움과 지적(知的) 연마를 거친 지식인이었지만, 지나친 의구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무책임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칼레파 타 칼라」에서 아테르타의 시민들은 충동적이고 단순하며, 우매한 군중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들은 지나치리만치 단순하다. 그래서 진실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동가들의 선동에 동화되어 가는 인물이다. 혼자서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드러낼 말솜씨도, 배짱도 없는 그들이었다. 그런데 폭동자로 변하고, 자신의 나라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던 것이다.

아테르타의 시민들은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 동안, 그냥 그 막연한 동조에 이끌려 광장으로 모여들게 된다. 거기다가 많은 군중 속에서 안도하고자 하는 소수의 불안도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 모으는 데 중요한 몫을

83) 위의 책, 23면.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신념이 없는 시민들이었기에, 광장이 절반 가까이 차도 약간의 혼란과 웅성거림뿐, 별다른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군중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암시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르 봉은 우연한 개인의 집합이 조직화된 군중이 되려면 어떤 유인(誘因), 즉 암시가 작용해야 된다[84]고 보았다. 아테르타의 시민들은 그들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여전히 개인의 집합에 불과했다.

> "보시오. 저 포악한 티라나투스의 주구(走狗)는 불의를 규탄하는 우리의 동료시민을 저토록 구타하고 상해했소. 형제의 고귀한 피가 대지를 적시고 있소…"
>
> 그러자 시민들은 모두 도주를 멈추고 하나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다시 군중을 이룬 셈인데, 그것은 선동자의 외침보다도 호기심 탓이었다.
>
> "언제까지나 압제받으며 신음할 것이오? 언제까지 대의(大義)를 위해 박해받는 형제를 방관할 것이오? 궐기합시다. 티라나투스의 주구를 처벌하고, 그 참주를 방벌(放伐)합시다."
>
> … 중략 …
>
> "시민들이여, 잠을 깨시오. 형제들이여, 일어나시오. 방금 또 압제자의 철권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같은 운명의 배를 타고 있는 동료시민 하나를 타살하였소…"
>
> 드디어 그때껏 자제되어 왔던 군중의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85]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암시가 작용한 것이다. 그 암시는 다름 아닌 동료시민의 피였다. 피는 언제나 군중을 앞뒤 없는 흥분의 격정으로 몰아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선동자의 어떠한 달변보다도 시민들에게는 동료의 피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암시였던 것이다. 카네티는 이러한 암시를 '방전(entladung)'[86]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군중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방전이며, 방전이 일

84)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53면.
85)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앞의 책, 32-33면.
86)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앞의 책, 20-21면.
방전(entladung)은 방전 외에도 폭발, 방출, 해방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방전은'구속 상태로부터의 해방, 에너지의 폭발과 방출' 현상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어나기 전의 군중은 본질적으로 군중이 아니다. 방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군중이 생성된다.

실질적으로 군중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암시 역할을 한 시민의 피는, 신성대(神聖隊) 사관의 구타로 인해 다쳐서 흘린 피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스스로가 도망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져서 흘린 피였던 것이다. 대부분 군중들은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던 탓으로 그러한 진상을 모른 채, 선동자의 외침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믿고, 그것을 차츰 진실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최초의 암시로 인하여 분노한 군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 군중에 의해 아테르타는 점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 정치적인 불만은 한번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면 계속하여 참을 수 없게 되고 만다. 아테르타시도 마찬가지여서 애매하고 우발적인대로 첫 번째 소요가 있게 되자 그 다음은 합법적이 절차에 의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불만들도 소요의 형태로 폭발하였다. 거기다가 저절로 가라앉기를 단념한 타라나투스가 강경하게 대처하자 소요의 규모는 더욱 커져갔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체포되면 다섯 명의 친구와 열 명의 친척이 적극적인 적대자가 되고, 스무 명의 이웃이 다음 소요에 가담했으며, 한 사람이 부상당하면 그 배(倍)의 적대세력이, 그리고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倍)의 배가 되는 적대세력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87]

암시에 의해 조직화된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력을 지닌다. 감염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빠른 속도로 다른 군중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비판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독립된 의지를 단절시킨다. 따라서 군중은 이러한 암시성과 감염성으로 인해 범죄적일 수도, 도덕적일 수도 있다.[88] 시민들은 감염성에 의해 암시된 사상으로 티라나투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고 아테르타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 이제 시민들은 타라나투스에게 가졌던 처음의 소박한 불만, 요구들은 잊혀진 지 오래였다. 변혁에의 순수한 열정 같은 것들도 모든 반(反)압제의 대의 아래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대신 그들에겐 정형화된 구호와 선전만이

87)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앞의 책, 45면.
88)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51면.

그들을 충동할 뿐이었다.

길고 괴로운 투쟁과 많은 희생을 치루고 그들은 마침내 티라나투스를 몰아냈지만, 그들이 희생의 대가로 맞이한 새로운 집정관은 무능했고, 압제는 더욱 심했다. 그리하여 아테르타는 그 뒤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스타르타에게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진실을 외면한 어리석은 시민들 스스로가 자초한 멸망의 길이었다.

따라서 아테르타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을 권력의 압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미성숙한 군중의식이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뭐든지 쉽게 믿어버리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국을 스스로 파멸시켜 버린 우매하고 어리석은 군중이라 할 수 있다.

3. 이중적인 구조형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군중의식이 고도로 성장한 현대사회에서 군중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면 겉으로 표출되는 힘만으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담론적인 지식만으로도, 군중을 지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체제의 권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의 권력을 대변하는 힘과, 그 힘의 그림자로서, 일종의 담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힘이 체제의 구성원들을 익명화된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면, 지식은 그러한 권력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해 준다. 곧 힘은 행동으로 표출하고, 지식은 그 행동의 표출을 이데올로기로 감싼다.[89] 때문에 권력의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을 권력의 헤게모니에 편입시키려는 회유와 협박이 동반되며, 그것의 정당성은 지식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주입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러한 이중적인 지배체제가 적용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유당 정권 말기를 배경으로 시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권력과 그 주변 인물의 속성을 면밀하게 파헤친 소설이다.

---

89) 오홍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 -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과 관련하여」, 앞의 책, 188면.

1) 이중적인 절대 권력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중적인 권력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권력적인 인물은 엄석대이다. 그가 겉으로 표출하여 보여주는 힘은 엄석대의 겉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성숙하고 강력한 남성적인 외모와 폭력이미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엄석대의 목소리, 몸짓 하나하나에서 힘 있는 자로서의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다.

> "모두 저리 비켜!"
>
> … 중략 …
>
> 잘 모르는 나에게는 담임선생님이 돌아온 것이나 아닐까 생각이 들만큼 어른스런 변성기의 목소리였다.
>
> … 중략 …
>
> 아직 같은 반이 된 지 한 시간밖에 안됐지만 그 아이만은 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담임선생님과 내가 처음 교실로 들어왔을 때 차렷, 경례를 소리친 것으로 보아 급장인 듯한 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엇비슷한 60명 가운데서 금방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급장이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있어 뵐 만큼 큰 앉은키와 쏘는 눈빛 때문이었다.
>
> "한병태랬지? 이리 와 봐."
>
> 그가 좀 전과 똑같은, 나지막하지만 힘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 그만큼 그의 눈빛은 이상한 힘으로 나를 끌었다.[90]

군중은 상대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거나 겉모습에서 보이는 초월적인 힘이 엿보일 때 상대에게서 강한 카리스마를 느낀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라는 한병태의 생각은 이러한 군중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엄석대는 '어른스러운 변성기의 목소리'와 '머리통 하나는 더 있어 뵐 만큼 큰 앉은키와 쏘는 듯한 눈빛'의 소유자이면서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센 주먹'[91]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석대는 호적의 잘

90)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사, 1988, 22면.

못으로 같은 학급의 아이들 보다 2-3살 위이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다. 겉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엄석대의 폭력이미지는, 4학년때 중학생과 싸워 이겼다는 그의 싸움의 전력에 의해 신화화되고, 새로 전학 온 '석대보다 더 크고 힘 센 아이'와의 결투에서 엄석대가 승리함으로써 현실화된다. 이 현실화된 폭력이미지야말로 엄석대 자신을 아이들에게 '당연히 존경과 복종을 바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엄석대는 자신이 지닌 카리스마와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권력의 구축을 마련한다.

이러한 힘으로 권력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엄석대는 다음 단계로 그의 체제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학급에서 공부 잘 하는 반 아이들을 자신의 권력 속으로 편입한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지식인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이다. 학교의 세계에서는 폭력보다도 더 절대적일 수 있는 '전교 1등'이라는 수재로서의 엄석대를 만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 속으로 끌어들인 공부 잘 하는 반 아이들의 도움으로 쉽게 이루어졌다.

> 나는 우연히 박원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응용문제 하나가 막힌 내가 꼭 컨닝을 하겠다는 뜻에서라기보다 그 애는 답을 썼나 안 썼나가 궁금해 힐끗 훔쳐보니, 이미 답안지를 다 채운 그 애가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다.
>
> … 중략 …
>
> 그 애는 힐끔힐끔 시험 감독을 나온 딴 반 담임을 훔쳐보며 방금 말끔히 지운 곳에 얼른 이름을 써 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엄석대의 것이었다.
>
> … 중략 …
>
> 그제서야 나는 엄석대가 그토록 놀라운 평균점수를 얻어내는 비결을 알아차렸다.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려준 그림도 사실은 석대의 전 과목 수(秀)를 돕고 있었다는 것도.[92]

엄석대의 '전교 1등'이라는 수재의 이미지 뒤에는 바로 이러한 비밀이 숨

91) 위의 책, 30면.
92) 위의 책, 61면.

겨져 있었다. 엄석대는 그의 권력 속에 편입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과목을 지정해주어 그 아이들에게 시험 때 마다 그들의 시험지에는 엄석대의 이름을 쓰게 하고, 자신의 시험지에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쓴다. 지능적인 교활함이다. 이렇게 위장된 지식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석대에게 이러한 수재의 이미지를 제공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댓가로 엄석대라는 권력자의 보호아래서 폭력과의 심각한 대치도 없이 편안한 생활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폭력적인 힘의 이미지로 아이들을 제압하고, 그 제압한 반 아이들에게서 추출한 지식의 힘을 통해 권력자로서의 위치를 갖춘 엄석대가, 그의 체제에서 절대 권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묵인이다. 담임선생님의 묵인은 엄석대에게는 선생님의 자신에 대한 급장으로서의 절대 신임이다. 그리고 그 절대 신임의 결과가 반 아이들에게는 선생님과 엄석대는 동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엄석대의 한마디는 절대화되어 아이들의 행위를 규정하게 된다.

> 오히려 석대를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담임선생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들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우리 반의 교내 활동은 다른 어느 반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의 주먹은 주번선생님들이나 6학년 선도들의 형식적인 단속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군것질이나 그 밖의 자질구레한 교칙 위반을 막았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검사는 우리 교실을 그 어떤 교실보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화단을 드러나게 환하게 했다.
>
> … 중략 …
>
> 그의 작업지휘는 담임선생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부리는 반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번듯하게 우리 반에 맡겨진 일을 끝내 주게 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가 주먹으로 전 학년을 휘어잡아 적어도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아이에 얻어맞는 일은 없게 된 것도 담임선생님으로서는 그리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93]

엄석대는 단순히 폭력에 근거한 압제와 억압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지배체제 속에 존재하는 한 군중들은 질서와 안정을

93) 위의 책, 34면.

구할 수 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질서 속에 존재하는 안정일지라도 군중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눈 감아 버리는 속성이 있다. 엄석대는 이러한 군중의 심리인 안정을 지향하는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군주가 국가를 통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의지·야심·용기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불성실·몰인정·잔인함을 나타내도 무방하고, 종교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94] 엄석대는 바로 이러한 군주의 성향과 지배 방식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군중의 지지기반을 획득하고 있다. 엄석대는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는 양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편 그의 어린아이답지 않은 비상함과 통치방법으로 자신의 추종자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엄석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힘과 지식을 적절하게 이용한 이중적인 권력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절대 지배 권력을 확보한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주위 군중을 적절하게 조종할 줄 아는 교활함과 뛰어난 지략자[95]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2) 이중적인 군중

권력은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에 따라 군중도 변한다. 권력자가 독재적인 압제에 의해 권력을 행사했다할지라도, 군중은 더 강한 존재의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독재적인 그 압제 권력에 순응한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더 강한 존재에게로 옮겨 간다. 르 봉에 의하면, 군중은 나약한 개인을 상대로는 언제든 거침없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는 언제든지 비굴하게 부복(俯伏)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96]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와 결탁하여 기존의 권력자를 추방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

94) 마키아벨리, 송우 역, 『군주론』, 여명출판사, 1988, 47면.
95) 최성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교연구」, 앞의 책, 120면.
96)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앞의 책, 85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한병태는 엄석대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이지만, 결국 집단의 이름으로 다수에 의해 자행되는 박해와 끈질긴 위협, 그리고 회유 공작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인물이다.

한병태는 전학 와서 처음 교실로 들어섰을 때, 서울아이가 시골아이에게서 느끼는 우월의식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엄석대란 존재의 절대 권력체제에 의해 그 우월의식이 깨어진다. 그는 자신의 깨어진 우월의식을 엄석대의 잘못으로 돌린다. 그리고 엄석대를 둘러싼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권력체제를 비난하며, 그 권력체제에 저항한다. 하지만 한병태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엄석대를 상대로 한 저항은 곧 학급 반 아이들 다수를 상대로 한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오늘…60명 중 네 편은 단 하나도 없었어. 네가 꼭 석대를 급장자리에서 쫓아내고…우리 반을 서울에서 네가 있던 반처럼 만들고 싶었다면… 먼저 그 아이들을 네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석대가 이미 그 아이들을 휘어잡고 있어서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
> … 중략 …
>
> 설령 네가 옳더라도…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 할 수 밖에 업다. 네가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을 것처럼…아이들의 그 지지란 것이 실상은 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넘어간 거짓된 것일지라도…마찬가지야. 나는 어쨌든…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석대의 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껏 흐트러짐 없이 잘돼 나가던 우리 반을…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흩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 거기다가…어쨌거나 석대는 전 학년에서 가장 공부 잘 하고…통솔력 있는…모범적인 급장이다. 무턱대고 비뚤어진 눈으로 보지 말고…그의 장점도—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그들과 함께 새로… 시작해 보아라. 석대와 경쟁하고 싶다면…정당하게 경쟁해라. 알겠니…"[97]

엄석대의 비리를 호소하는 한병태에게 담임선생님은 '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에게 현실과의 타협을 권유한다.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새로 시작해 보아라'는 선생님의 말은, 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안

97)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앞의 책, 47-48면.

정과 평화일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한병태도 그 체제에 순응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당한 다수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한병태에게 그 속에 들어가 함께 시작해 보라고 설득하는 것은 한병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내세우는 '자유와 합리의 지배'에 대한 애착을 나약의 표지로만 일축한다.[98]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엄석대를 '대단한 아이'라고 치켜세우며 '벌써 그만하다면 나중에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고 감탄한다. 이는 불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왜곡된 권력 이기주의이다. 한병태는 자신의 편에 서서 엄석대의 부당한 폭력의 권력체제를 전복시켜 주리라 믿었던 선생님과 아버지라는 정신적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우월의식의 저항은 사라지고 고립된 저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엄석대의 절대 권력체제 내에서 한병태가 고립과 단절을 뚫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엄석대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고, 그의 체제에 대한 묵시적인 순응과 복종이다.

> 너무나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고 또한 그만큼 어이없이 시작된 굴종이었지만, 그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오래고 끈질긴 반항 끝에 이루어진 굴종의 열매라 더 달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그의 질서 안으로 편입된 게 확인되면서 석대의 은혜는 폭포처럼 쏟아졌다.[99]

엄석대의 권력체제에 비타협적인 저항을 했던 한병태가 너무나 쉽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석대체제로 편입된다. 기나긴 투쟁을 통해 의식의 굴절을 겪고 난 뒤, 체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병태는 오랫동안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했었다는 것이 무색하리만치 엄석대의 체제에 쉽게 동화되어간다. 이제 그는 권력의 그늘이 주는 복종의 단맛에 취해서, 그 달콤함을 잃을까 변혁을 두려워하고, 안정만을 지향하려는 보수주의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세속적인 지식인의 특징으로 '기회주의적 태도, 용의

98) 정상균, 「이문열 문학 연구」, 『인문과학』 3,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97면.
99)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앞의 책, 58면.

주도한 침묵, 애국적 무모함, 극적인 변절' 등을 꼽았다.[100] 그리고 그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속적인 지식인을 비판하였다. 한병태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세속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엄격한 생태계의 권력구조 법칙 속에서 권력자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비겁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10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반 아이들'은 몽매하고 우매한 군중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권력체제에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군중이다. 또한 아이들은 엄석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보다는 자발적인 순응의 태도를 보여준다.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힘을 합쳐 엄석대의 불합리한 폭력과 권력체제에 항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이들은 그 권력에 편승하여 권력이 주는 달콤한 열매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엄석대와 반 아이들 사이에 지배와 복종에 대한 합의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 "임마 엄석대가 오라고 하잖아? 급장이."
>
> 내가 엄석대란 이름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이름은 듣는 순간 그대로 내 기억에 새겨졌는데—아마도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유별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언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존경과 복종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
> … 중략 …
>
>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102]

엄석대는 아이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의 대상이다. 엄석대체제에 저항하는 한병태가 엄석대체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세력이 바로 아이들이다. 한병태가 엄석대체제에 철저히 저항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그를 따돌렸고, 한병태의 '자유와 합리적인 지배'라는 변혁의 의지까지

100) 에드워드 사이드, 전신욱 역,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창, 1996, 20면.
101) 최성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교연구」, 앞의 책, 130면.
10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앞의 책, 23-24면.

꺾어버렸다. 아이들에게는 엄석대의 권력을 부정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한병태의 존재가 엄석대 혼자만의 적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 자신들의 적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엄석대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 권력 속에 편입되어 있는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이들이 엄석대체제의 몰락과정에서 보여준 엄석대에 대한 부정은 신기로울 만큼 과격하고 전면적이다.

> 어제까지 크고 건강했던 우리 반 급장은 간 곳 없고 우리 또래의 평범한 소년 하나가 볼품없는 벌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거기 비해 담임선생님은 키와 몸집이 갑자기 갑절은 늘어난 듯했다. 그리하여 무슨 전능한 거인처럼 우리를 내려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
> … 중략 …
>
>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그런 것을 고발하는 아이들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선생님만 쳐다보고 머뭇머뭇 밝히다가 한 번호 한 번호 뒤로 물릴수록 차음 목소리가 커지면서 눈을 번쩍이며 쏘아보는 석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마' '새끼' 같은 전에는 입 끝에 올려보지도 못한 엄청난 욕들을 섞어 선생님에게 고발한다기보다는 석대에게 바로 퍼 대는 것이었다.[103]

절대적 존재였던 엄석대에게 '임마' '새끼' 같은 욕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아이들에게서 엄석대의 존재적 위치가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이들의 절대 권력 우상이 바뀐 것이다. 범할 수 없었던 엄석대의 존재는 이제 볼품없는 우리 또래의 아이로 변해 있었고, 엄석대와 동격으로 치부했던 선생님이 그러한 엄석대를 대신하여 '전능한 거인'으로 아이들 앞에 섰다. 새로운 영웅의 절대 권력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한병태가 엄석대의 권력에 도전했을 때, 엄석대체제를 옹호하던 것과는 달리, 새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의 권력에 도전했을 때는, 오히려 엄석대의 체제를 고발하고 철저하게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병태의 힘은 엄석대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 못했지만, 새 담임선생님의 힘은 엄석대의 권력을 능가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절대 권력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아이들은 엄석대의 힘과 지식의 이중적

---

103) 위의 책, 71-75면.

인 지배체제에 철저하게 순응한다. 그러나 엄석대의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항하며 돌아서는 군중의 이중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군중과 권력의 의미

지라르는 모든 종교적, 문학적 활동의 원형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하나의 희생양으로써 모든 가능한 희생양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라르는 우리 일상 자체, 아니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104]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들소」, 「칼레파 타 칼라」,「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세 작품 모두 희생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작품 속의 희생양으로는 「들소」의 '큰 목소리', 「칼레파 타 칼라」의 티라나투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군중, 혹은 권력이라는 집단의 위기에 의해 선택되어 희생된 희생양이다. 즉 어떤 집단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기에 처하게 했던 한 사람('큰 목소리', 타라나투스, 엄석대)에게 집단적으로 맞선다. 그 한 사람은 한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그래서 집단에 의해 추방당해야만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한사람이 추방된다면 사회적, 문화적 위기는 없어질 것이고, 그 집단은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이 악인[105] 한 사람을 추방하는 수단이 폭력이고, 따라서 이때의 폭력은 '좋은 폭력'으로 위장된다. 이러한 집단의 '좋은 폭력'의 대상자가 바로 희생양이며, 이 희생양을 집단에서 추방하여 만인이 긍정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식이 바로 희생양의식이다. 그러면 이들 세 사람의 희생양을 지라르가 말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네 가지 상투형[106]에 의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104)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앞의 책, 347면.

105)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앞의 책, 501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희생양의 선택은 희생시키는 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이때 희생양에 선택되는 이는, 희생시키는 집단의 입장에서 악인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106)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앞의 책, 43면.
지라르는 중세기 유태인들을 피해자로 만든 처형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희생양 메커니즘의 상투적인 전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문화적 위기, 즉 전면적인 무차별화에 대한 묘사(첫 번째 전형), 두 번째로, 무차별화의 범죄(두 번째 전형), 세 번째, 범죄용의자들이 희생양으로 선택될 징후나 무차별화의 역설적인 지표를 가진다(세 번째 전형), 네 번째로, 폭력 그자체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박해 행위가 시행된다(네 번째 전형). 지라르는 이중 셋이나 둘이 있어도 박해의 텍스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들소」에서 ‘큰 목소리’는 ‘뱀눈’의 권력 집단에 의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 ‘뱀눈’은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사회체제에서 자신이 절대 권력의 주체가 되는 계급 사회체제로 변혁시키려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변혁에 ‘큰 목소리’가 강력히 저항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키운다. ‘큰 목소리’는 혈족의 사제자로서 ‘뱀눈’도 그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뱀눈’은 ‘큰 목소리’를 자신의 권력체제로 회유하려 하지만 ‘큰 목소리’는 이를 거부하며 계속 대립한다. 이러한 현상은 혈족 내 분열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가져왔다.

> ‘뱀눈’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혈족의 대다수는 사제자를 신뢰하고 그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
> … 중략 …
>
> 어떻든 ‘큰 목소리’의 패거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어떤 때는 절반 가까운 혈족의 용사들이 그 동굴에 모여 웅성거릴 때도 있었다.
>
> … 중략 …
>
> “‘붉은 노을’이 죽었어…어이없이 곰의 앞발에 당했어…창 한 번 못쓰고…. 그런데—이상한 것은 죽은 그의 몸이 시퍼렇게 부어오르는 거야. 독사에 물린 것처럼. 이상해…”
>
> 그러나 그는 문득 불길한 상상이라도 쫓듯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
> “하지만 우리의 세력은 변함이 없어. 나의 경고와 설득은 점점 혈족의 가슴깊이 스며들고 있어. 내일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올 거야.”[107]

‘뱀눈’은 ‘큰 목소리’의 세력에 위기를 느낀다. 위기의식을 느낀 ‘뱀눈’은 ‘큰 목소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큰 목소리’의 핵심 인물인 ‘붉은 노을’을 사냥에서 동물에게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독살한다. 그러나 ‘큰 목소리’의 세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사제자의 위치는 아직도 혈족에게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자리임을 엿볼 수 있다. ‘뱀눈’이 이대로 ‘큰 목소리’의 세력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혈족의 분열은 더 심해지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그는 자신이 지향하

107)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60-263면.

는 계급체제의 변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뱀눈'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회적 위기현상은 '큰 목소리'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큰 목소리'에게 전가시켜 그를 추방시키는 희생양으로 선택한다.

> "너는 하늘의 목소리를 멋대로 왜곡시켰고, 우리 혈족을 이간시켰으며 사냥에서 쓰러진 용사의 피를 내게 뿌려 모함했다. 내가 지금 너를 찌르지 않는 것은 형제의 피를 나의 창날에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일어나 당장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너의 사악하고 비열한 모습을 이 숲과 우리들 앞에 나타내지 말아라. 네가 다시 내 눈앞에 서게 되면 이 창이 먼저 너를 맞으리라. 네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면 숲의 정령은 번갯불로 너를 태우리라."
>
> … 중략 …
>
> "누구든지 나의 결정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주기 바란다. 저자의 거짓을 믿는 자. 내가 받은 모함을 의심하는 자."[108]

'뱀눈'은 '큰 목소리'를 사회적 위기현상인 혈족을 분열시킨 용의자로 지목한다. 그는 이제 혈족의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위기의 죄를 '큰 목소리'에게 전가시켜 '큰 목소리'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큰 목소리'에게 씌워진 죄명은, 사제자란 신분으로 하늘의 목소리를 왜곡시켰고, 동료인 '붉은 노을'의 죽음이 '뱀눈'의 짓이라고 모함하여 혈족 간을 이간질시켰으며, 이로 인해 혈족 간의 분열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무차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뱀눈'의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큰 목소리'라는 희생양을 선택하여 그 위기의 책임을 희생양에게 덮어 씌워서 희생양을 추방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지라르는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다수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이질적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109] 이렇듯 희생양의 선택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큰 목소리'의 경우 희생양의 징후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제자'라는 비범한 신분에서 찾을 수 있

108) 위의 책, 266면.
109)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앞의 책, 33면.

다.

다음은 폭력에 의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박해행위이다. 이 전형은 모방본능으로 폭력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서로를 향한 폭력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력이 약한 한 희생양을 선택하여 만장일치된 집단폭력의 형태를 띤다. 이때 희생양에 대한 집단폭력은 신성한 신의 명령이란 이름으로 철저히 은폐되어 있다. 희생양의 살해의식으로 공동체의 갈등은 해소되고 일시적인 평화와 질서를 되찾게 된다.[110]

> 그런데 반쯤 그을린 '큰 목소리'의 시체가 그들 혈족 앞으로 운반돼 온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직 축제 기분에서 덜 깨난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사제자는 전임자의 죽음을 이렇게 선포했다.
>
> "하늘은 자기의 목소리를 왜곡한 자에게 징벌을 결정하셨다. 위대한 조상들의 영혼들이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는 그에게 번갯불을 날라 주었다. 그는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이다. 오오, 사제된 자 모름지기 경계할진저"
>
> 그러나 그는 보았다. 벼락 맞은 고목이나 짐승들과는 달리 '큰 목소리'의 시체에는 여기저기 재와 검댕이 묻어 있었다.[111]

여기서 희생양의 살해의식은 교묘하게 신선한 신의 이름으로 은폐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큰 목소리'는 하늘이란 이름을 가장한 '뱀눈'의 권력 집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그는 보았다. 벼락 맞은 고목이나 짐승들과는 달리 '큰 목소리'의 시체에는 여기저기 재와 검댕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태워졌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희생양인 '큰 목소리'의 시체가 번갯불, 즉 불에 태워졌다는 것은 희생양의 정화작용을 의미한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불로써 가장 근본적인 정화작용을 했다.[112] 그래서 희생양의 희생의식에도 불을 사용하여 정화시킨 것이다. 이는 곧 희생양을 정화시킴으로 해서 자신들이 정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들소」에서 '큰 목소리'는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뱀눈'이 자신의 권력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저항하는 그를 희생양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큰 목소리'는 권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

110)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앞의 책, 154-156면.
111) 이문열, 「들소」, 앞의 책, 269-270면.
112)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앞의 책, 101면.

「칼레파 타 칼라」에서 티라나투스는 시민에 의해 희생양으로 선택된 인물이다. 도시국가 아테르타는 집정관 티라나투스의 합리적인 통치하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전에서 들려온 '압제받고 있다'는 한 마디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압제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순식간에 광장으로 모여 들여 일제히 폭동을 일으키는 대열에 참가된다.

> 그리하여—날이 훤히 밝아 올 무렵 오랜 사유에 지친 소피클레스는 그만 큰소리로 도시 전체에 대해 이렇게 문의하고 말았다.
> "아테르타 시민이여, 우리는 압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중략 …
> 그는 그러한 시민들의 변화가 강력한 정적인 자기를 몰아내고 압제를 꿈꾸는 티라나투스의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오고 있었다.
> … 중략 …
> 이 도시의 시민들을 모두 감각적이로 향락적인 우민(愚民)으로 만들어 참주가 되려는 티라나투스가 신(神)에게 는 경건하고 인간에게는 엄숙한 자기의 작품이 외면당하도록 남몰래 책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 … 중략 …
> "그렇다. 우리는 압제받고 있는 것 같다…"[113]

소피클레스라는 한 지식인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한 마디로 인해, 아테르타는 순식간에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는 '압제로 인한 폭동'이었다. 즉 시민들은 집정관인 티라나투스에게서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사회는 그로인해 혼란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사실상 여기서 시민들이 말하는 위기인 압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다만 시민들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압제였고, 그래서 생긴 위기였다.

시민들은 티라나투스를 몰아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티라나투스는 압제라는 사회적 위기의 무차별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압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 무차별범죄를 저지른 티라나투스를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압제

113)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앞의 책, 22-24면.

를 받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쪽은 신전(神殿)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가 신에 의한 신탁(神託)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 요즈음 그들의 갑주며 투구가 너무 번쩍이더라,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미 화평조약을 맺었는데도 그들은 공연히 날카로운 칼들을 뽑아 들고서는 큰 전쟁이라도 하러 가듯 티라나투스를 뒤따르다가 무심코 접근하는 시민을 노예 다루듯 호령하더라, 라고. 신성대(神聖隊)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들은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고용된 일꾼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티라나투스에게 급료를 받는 것처럼 그만을 상전으로 떠받들고, 우리에게는 도리어 상전처럼 으스대고 있다.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신전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신전에는 있지 않고 쓸데없이 거리를 저벅거리며 방패와 창칼로 시민들을 위압한다라고.[114]

시민들은 일제히 티라나투스의 무차별범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집정관이 거느리는 호위대인 은갑대와 신전을 지키는 신성대에 대한 위압적인 행위에 불만을 비롯해서, 땅을 잃어버린 농부, 몰락한 영세 수공업자, 파산한 소상인(小商人), 좀도둑이 된 노숙자, 몸을 파는 매춘부, 실패한 정객, 인기 없는 비극시인(悲劇詩人) 등,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것이 티라나투스가 집권한 후부터였기 때문에 티라나투스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그의 죄라고 부르짖는다. 결국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마침 시민 폭동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티라나투스의 정치적 압제란 것에 정황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시민들은 티라나투스를 그들의 희생양으로 선택하여 그것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움으로 해서 그들은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지라르는 그 희생양들이 선택된 것은, 희생양이 실제적으로 그 집단이 비난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희생양의 징후, 즉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115] 티라나투스는 실제로 다리를 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름발

114) 위의 책, 26면.
115)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앞의 책, 43면.

이라는 풍설이 있다. 그의 이러한 징후는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 선택 징후와 일치하는 비정상[116]이라는 징후에 해당된다. 이는 희생양으로서의 징후로 인해 그가 저지른 범죄와 상관없이, 그 징후만으로도 이미 그는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한다.

> "시민들이여, 잊었는가? 저자가 우리를 압제하던 자,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육하고, 단란하던 보금자리를 불태운 자다. 저자를 죽여라. 정당한 분노의 돌로 저자를 쳐라."
>
> 선동자가 그렇게 외치며 들고 있던 흉기로 티라나투스를 내려치자 군중들에게도 이제는 거의 어떤 강박관념이나 습성과도 같아진 분노와 흉포성이 발작하였다. 일순의 숙연한 감동을 부끄러워 하 듯이나, 이내 갖가지 무기가 티라나투스를 난자하고, 마침내 티라나투스의 영혼은 다져진 고기처럼 된 육신을 떠났다.[117]

참으로 길고 괴로운 투쟁이었다. 군중들은 무차별범죄로 사회적 위기의 초래를 가져다준 티라나투스를 살해함으로써,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회적 위기인 압제에 의한 폭동에서 벗어난 것이다. 군중들의 '갖가지 무기가 티라나투스를 난자' 하는 것은 군중들이 나쁜 일인을 응징하기 위한 '좋은 폭력'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화된 '좋은 폭력'으로 '나쁜 폭력'의 대상인 티라나투스를 희생양제의에 따라 살해함으로써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사회체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칼레파 타 칼라」에서 '티라나투스'는 한 경솔한 지식인의 한마디와 압제를 두려워하는 아테르타 시민들의 지나친 기우(杞憂)로 인해 선택된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는 6학년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라는 집단에 의해 선택된 희생양이다. 엄석대는 아이들을 선생님의 위치에서 다루고 있으며, 아이들 역시 엄석대를 급우 이상의 존재로 보았다. 즉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존재를 선생님과 동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현상은 차이가 있어야 할 곳에 차이가 없어지는 현상, 곧 무차별현상이다. 엄석대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엄석대와 동격이다. 그것은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116) 위의 책, 46면.
117)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앞의 책, 55면.

서 벗어나는 행위이며, 6학년 새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그러한 무차별현상은 곧 위기로 인식되어진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위기의 상투적 전형에 해당된다.

>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 일었다.
>
> … 중략 …
>
> 또 한 번은 다섯 째 쉬는 시간 에 내 옆 분단의 두 아이가 무슨 일인가로 싸워 한 아이가 코피가 난 때였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모든 걸 제쳐놓고 먼저 석대부터 찾았다. 마치 서울 아이들이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먼저 선생님부터 찾는 것과 비슷했고, 얼마 뒤 불려온 석대가 한 일도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 … 중략 …
>
> 더 이상한 건 여섯째 시간 수업을 들어온 담임선생님이었다. 석대의 보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흑판 지우개를 터는 막대기로 벌서고 있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 줌으로 써 내게는 월권이라고만 생각되는 석대의 처리를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추인(追認)해 버리는 것이었다.[118]

여기서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 ‘마치 서울 아이들이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먼저 선생님부터 찾는 것과 비슷했고’, ‘담임선생님이 내게는 월권이라고만 생각되는 석대의 처리를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추인(追認)해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한병태의 말에서 반 아이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한병태 자신도 선생님과 엄석대를 동격의 위치에 놓고 있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할 곳에 차이가 없어져 버린 무차별현상이다.

그렇다면 전 담임선생님은 왜 엄석대의 무차별현상을 묵인하였을까하는 의문이다. 전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와의 무차별현상을 묵인한 것은, 그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성의한 교사에

118)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앞의 책, 24-.26면.

의해 더욱 은폐되고 조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담임선생님의 경우 일단 젊고, 유능하며, 성실하다는 점에서 전 담임선생님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 담임선생님은 전 담임선생님과는 다르게 작은 일도 지나쳐보거나 흘려듣는 일이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을 강하게 이끌어 가려한다. 전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와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을 했다면, 새 담임선생님은 엄석대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되찾음이 쉽지 않다. 아이들은 이미 엄석대를 절대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깨뜨리기엔 엄석대가 확보하고 있는 권력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새 담임선생님은 학급에서 엄석대가 확보하고 있는 권력을 무너뜨릴만한 근거가 없었기에 엄석대의 기존질서를 인색하게나마 인정을 해주는 상태였다. 그러나 학급에서의 엄석대의 권력을 인정해주기엔, 선생님 스스로의 위치를 정립하기 힘들었으며,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엄석대가 동격이라는 상태로 인식되어야 하는 부정성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새 담임선생님은 엄석대의 시험부정을 발견하였으며, 학급아이들을 다그쳐서 그동안 엄석대가 행한 무차별화의 범죄를 알게 된다.

"엄석대는 평균 98점으로 전 학년에서 1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전 학년10등 밖이다. 나는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

… 중략 …

"나는 너희들이 지난 한 달의 각종 시험에서 번갈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딴 이름을 써서 낸 걸 알고 있다. 어쩔래? 맞고 입을 열래? 좋게 물을 때 바로 댈래? 그게 누구야? 누구와 시험점수를 바꾼 거야?"

… 중략 …

"석대는 내 연필깎이를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속주간이 아닌데도 쇠다마(구슬)를 뺏어가고……"

1번 아이가 그렇게 입을 열자 2번, 3번도 아는 대로 털어 놓기 시작했다.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석대의 비행(非行)은 끝없이 이어졌다. 여자애들의 치마를 들추게 시켰다든가, 비누를 바른 손으로 수음(手淫)을 하게 했다는 따위 성적(性的)인 것도 있었으며 장삿집 애들은 매주 얼마씩 돈을 바치게 하고, 농사짓는 집 아이들에게는 과일이나 곡식을, 대장간 아이에게는 엿으로 바꿀 철물을 가져오게 하는 따위 경제적인 수탈도 있었다. 돈 백환을 받고 분단장을 시켜준 일이며, 환경정리를 한다고 비품구입비를 거두어 일부를 빼돌린 게 밝혀지고, 그 전해 한 학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나를 괴롭힌 과정도 대강은 드러났다.[119]

엄석대는 자신이 구축한 권력을 이용하여 아이들이란 군중을 향해 성적 희롱을 하거나, 돈이나 물건의 상납, 그리고 시험부정 등과 같은 악행의 무차별화 범죄를 저질렀다. 학급아이들은 처음에는 새 담임선생님의 강요에 못 이겨 머뭇거리며 마지못해 엄석대의 비행을 밝히다가, 나중에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엄석대를 향해 '임마', '새끼' 같은 전에는 감히 입 끝에 올려보지도 못한 욕들을 섞어 가며 선생님에게 고발하기 한다. 이제 아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엄석대에게 집단적으로 맞선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석대보다 더 큰 권력의 존재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엄석대란 존재를 추방해야만 한다. 엄석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끝없는 폭력의 연속만 계속될 것이다. 엄석대가 추방된다면 엄석대로 인해 초래되었던 사회적 문화적 위기는 없어질 것이고, 아이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엄석대를 희생양으로 선택한다.

엄석대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어진 희생양의 징후는 '어른스런 변성기의 목소리''머리통 하나는 더 있어 뵐 만큼 큰 앉은키와 쏘는 듯한 눈빛'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센 주먹' '2-3살 많은 나이'[120]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는 엄석대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어질 조건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희생양의 조건을 갖춘 희생양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추방된다. 이때 희생양에 대한 집단폭력은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순화적 폭력'이다.[121] 즉 군중들은 무차별화된 범죄로 사회체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폭력'을 응징하는 순수한 폭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순화적 폭력'이다.

새 담임선생님은 엄석대의 시험부정에 대한 확정을 잡게 된다. 이제 선생님은 엄석대를 무너뜨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

119) 위의 책, 70-74면.
120) 위의 책, 32면.
121)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앞의 책, 498면.
사회질서와 체제가 유지되려면 부당한 폭력과 정당한 폭력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지라르는 전자를 '불순한 폭력(violence impur)' 후자를 '순수한 폭력(violence pur)' 혹은 '순화적 폭력(violence purificatrice)'이라고 부른다.

엄석대의 시험 부정에 대한 확정을 잡자마자 즉각적인 폭력으로 엄석대의 권력을 단번에 무너뜨려서 부정해 버린다.

> 그러나 그런 모진 매질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석대가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석대도 매를 맞는다. 저토록 비참하고 무력하게 -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담임선생님이 노린 것도 바로 그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122]

새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의 시험부정에 대한 확정을 잡자마자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은, 지금까지 동격으로서의 선생님과 엄석대의 위치를 깨뜨리고, 전 담임선생님에 의해 잃어버린 선생님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자기 방어본능에서 나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석대도 매를 맞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엄석대도 선생님에게는 무력에게 매를 맞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엄석대와 선생님은 동격이 아니며, 선생님이 엄석대보다 더 높은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노린 충격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결국 아이들은 더 큰 권력 존재인 선생님과 합세하여 엄석대에게 대항함으로써 엄석대의 '불순한 폭력'을 응징한다. 그리고 엄석대는 새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의 '순화적 폭력'에 의해 추방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의 희생은 선생님에게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게 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절대 권력자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엄석대는 악한 절대 권력의 존재였지만, 또한 군중과 권력에 의한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의 군중과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들소」는 그 시대적 배경이 힘이 주체가 되는 선사시대이므로 힘의 체제 관점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들소」에서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권력자가 추구하는 권력은 힘이다. 그 힘은 원시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들소 사냥'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

12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앞의 책, 69-70면.

낸다. 이러한 힘의 체제에서 군중들은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순응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들소」를 통해서 이문열은 권력의 비겁한 속성과 함께 힘이라는 불합리한 권력에 부딪히기가 두려워, 차라리 그 힘의 권력에 순응하는 방식을 선택한 군중들의 나약함을 비판하고 있다.

「칼레파 타 칼라」는 자유와 합리의 민주적 체제 관점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절대 권력을 취한 권력자는 통제하는 압제보다는 자유와 합리를 추구하는 권력자이다. 이러한 자유와 합리의 체제에 길들여진 군중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을 권력의 압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성숙한 군중의식이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뭐든지 쉽게 믿어버리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국을 스스로 파멸시켜 버리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문열은 「칼레파 타 칼라」에서 의식 없는 '스파르타의 시민들'을 내세워 옳고 그름의 구별조차 못하는 군중들의 의식 없는 우매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이문열은 아무리 자유와 합리적인 정치 체제를 구현한다 할지라도 의식수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우매한 군중들이라면 스스로 자유와 합리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힘과 지식의 이중적 체제 관점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열은 권력자 엄석대를 통해서 힘과 지식을 적절하게 병합한 이중적인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열은 엄석대의 이러한 이중적인 권력 형태에서 현대 사회의 교묘하게 은폐된 권력 형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든다. 또한 군중으로 상징되는 한병태와 아이들 역시 그 권력에 저항과 순응, 혹은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병태는 엄석대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이지만, 결국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군중의 모습이다. 그리고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힘과 지식의 이중적인 지배체제에 철저하게 순응한다. 그러나 엄석대의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항하며 돌아서는 이중적인 양상을 가진 군중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문열은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에서 권력의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그

권력에게로 돌아서는 군중들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이중성을 포착하여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작품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나는 이문열의 군중에 대한 인식태도는, 군중은 체제의 변화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안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기존의 체제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 기존체제의 현실을 옹호하며 감수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또 설령 군중들이 기존체제에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한다. 이는 군중들의 나약하고 우매한 성향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문열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군중 논리는 이문열의 정치의식의 논리와 연결된다. 이문열은 정치의식 과잉이 무관심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두꺼울수록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변혁을 외치는 급진주의자들은 사회적 허영을 불 지핀다는 것이다.[123] 이러한 이문열의 군중에 대한 인식태도는 비관적인 전망을 유포하며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군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23)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27-35면.

Ⅴ. 결 론

이문열은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이미 큰 문학적 성과를 일구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작가적 역량을 발휘하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문열의 소설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은 그의 소설이 바로 한국사회의 정치체제 속에서 드러나는 군중과 권력의 원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체제의 변화에 따른 군중과 권력의 대립은 항상 부조리한 이항대립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문열 소설은 이런 부조리한 시대의 군중과 권력의 모습을 냉정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는 이문열의 이러한 군중과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소설 「들소」,「칼레파 타 칼라」,「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각각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이문열 소설에서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군중과 권력의 이론적 개념’에서는 세 작품에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르 봉의 ‘심리적 군중’, 카네티의 ‘권력 개념’ 그리고 지라르의 ‘희생양’을 그 이론적 준거로 삼았다.

‘Ⅲ.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권력과 군중의 양상’에서는 세 작품을「들소」→「칼레파 타 칼라」→「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수순으로 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군중과 권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들소」는 그 시대적 배경이 힘이 주체가 되는 선사시대이므로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구조체제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뱀눈’이 추구하는 권력은 힘이다. 그 힘은 원시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들소 사냥’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러한 ‘뱀눈’의 힘의 권력에 ‘얘기꾼’과 ‘초원의 꽃’은 권력체제에 순응적인 방식을, ‘소를 겁내는 자’는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힘이 주체가 되는 힘의 체제에서 군중들은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칼레파 타 칼라」에서는 자유와 합리의 민주적인 구조체제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절대 권력을 취한

티라나투스는 통제하는 압제보다는 자유와 합리를 추구하는 권력자이다. 이러한 자유와 합리의 체제에 길들여진 군중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테르타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을 권력의 압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미성숙한 군중의식이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뭐든지 쉽게 믿어버리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국을 스스로 파멸시켜 버리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힘과 지식의 이중적 구조체제에서 권력자와 군중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권력자 엄석대는 힘과 지식을 적절하게 병합한 이중적인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중으로 상징되는 한병태와 아이들 역시 그 권력에 저항과 순응, 혹은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었다. 한병태는 엄석대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이지만, 결국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군중이다. 그리고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힘과 지식의 이중적인 지배체제에 철저하게 순응한다. 그러나 엄석대의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항하며 돌아서는 이중적인 양상을 가진 군중이었다.

다음으로 'Ⅳ. 이문열 소설에 나타난 군중과 권력의 의미'에서는 이들 세 작품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폭력에 의해 희생양이 된 군중과 권력자를 살펴보고, 또한 이문열이 생각하는 군중과 권력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세 작품 속의 인물들인 '큰 목소리', 티라나투스, 엄석대는 군중과 권력이라는 것에 의해 희생된 희생양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큰 목소리'는 절대 권력을 욕망하는 '뱀눈'이 자신의 권력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큰 목소리'를 희생양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권력에 의한 군중의 희생이다. 티라나투스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을 권력의 압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군중에 의한 권력의 희생이었다. 그리고 엄석대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선생님과 그 주변에서 무섭게 변절하는 아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의해 선택된 희생양이다. 이는 군중과 새로운 권력에 의한 기존권력의 희생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이들 희생양은 인간들의 그치지 않는 욕망에 의해 희생된, 즉 만인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인물[124]이라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세 작품에서 나타나는 군중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들 소설속의 군중들은 체제의 변화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안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때문에 그들은 기존의 권력 체제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 기존체제의 현실을 옹호하며 감수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또 설령 군중들이 기존의 권력체제에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한다. 이는 작품 속에서 군중들의 무지하고 나약하며 소극적인 성향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문열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군중 성향은 이문열이 지니고 있는 군중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문열은 정치의식 과잉이 무관심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두꺼울수록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문열의 세계관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군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미 고정관념으로 인식되고, 고정화된 작가의 세계관은 최대한 배제하고, 작품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군중과 권력의 성향만을 연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느 작품이든지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세계관은 지울 수 없듯이, 이문열 역시 그러하다. 이문열은 이들 세 작품 속에서 군중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군중의 단면만을 보고 판단한 편협한 사고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군중들이 체제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성향만을 지녔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를 고수한 이래 반세기 동안 우리의 많은 군중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 불합리하고 부패한 권력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며, 그 결과 오늘 날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기도 않았을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이 우리 문학사에서 가지는 그 탁월한 문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만약 이문열이 군중에 대한 이런 편협한 세계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는 여전히 미래를 전망해 주지 못하는 작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작가는 어지러운 난세에서 군중들에게 따뜻한 미래를 전망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124) 김현, 「증오와 폭력」,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91.
김현은 '만인 대 일인의 싸움'이라는 전제 속에, 만인에 의해 추방되거나, 죽게 되는 일인을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1992.

_____,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사, 1988.

_____, 『칼레파 타 칼라』, 나남출판, 1995.

2. 논문 및 평론

강근원, 「이문열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고은옥, 「매체 변용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권유리야, 「이문열 소설의 식민과 탈식민 연구 - 『시인』,『영웅시대』,『변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이문열론』, 삼인행 편집부 편, 1991.

김남석, 「교실의 사회학」,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김미옥, 「이문열 소설 연구 - 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 영, 「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연구 : 이데올로기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태준, 「이문열 중·단편 소설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현애, 「이문열의 예술가소설 연구 - 「들소」,「금시조」,「시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종홍, 「이문열 소설의 권력, 애정, 예술」, 『현대소설연구』 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송문현, 「군중·대중·공중의 비교 및 준거집단」, 고시계, 1988.

심동안, 「군중심리 서평」, 『정경문화』196, 경향신문사, 1981.

심일주, 「이문열의 성장소설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젊은 날의 초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선옥, 「낭만적 세계관과 여성관의 이원론 ; 이문열의 『영웅시대』,『레테의 연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제4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이수현,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비교 연구 : 이문열 소설의 영화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우용, 「이문열 연구 - 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무주의자」, 『말』41, 월간 말, 1989.

오홍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 -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과 관련하여」, 『대전어문학』11,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장양수, 「역사의식의 결여와 민중 모독 - 이문열 중편 「칼레파 타 칼라」의 경우」, 『한국문학론총』제14집, 한국문학회, 1993.

정상균, 「이문열 문학 연구」, 『인문과학』3, 서울시립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6.

정찬, 「개인적 진실에서 보편적 진실로」, 『문학동네』제6권 4호, 문학동네, 1999.

조영일, 「한국근대 교양소설 연구 - 이문열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성은, 「예지 안제예프스키의 『천국의 문』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교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제9호, 한국동서비교문학회, 2003.

최익창,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시간성과 인물의 알레고리」,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1.

최해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타니자키 쥰이치로의 『작은왕국』 비교연구 - 두 작품의 유사성고찰을 중심으로」, 『비평문학』제3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최훈석, 「군중 행동의 주요 형태와 심리적 기제」, 『철학과 현실』제66호, 철학문화연구소, 2005.

3. 단행본

권성우,『이문열론』, 삼인행, 1992.
김명인, 『이문열』, 살림, 1993.
김욱동, 『이문열』, 민음사, 1994.
김윤식 『이문열론』, 열린책들, 1993.
김현,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91.
신동욱, 『이문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송명희, 『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 사상, 2000.
성민엽, 『비평의 매혹』,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칼레파 타 칼라』, 나남출판사, 1985.
유종호, 『이문열론』, 삼인행, 1992.
이남호, 『이문열론』, 열린책들, 1993.
이동화,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이상우,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5.
정호웅,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현승일, 『사회학』, 박영사, 1989.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역,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2005.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6.
_____,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07.
마키아벨리, 송우 역, 『군주론』, 여명출판사, 1988.
막스 뮐러 · 알로이스 할더, 강성위 역, 『철학 소사전』, 이문 출판사, 1994.
막스 베버, 금종우・전남석 역, 『지배의 사회학』, 한길사, 1991.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6.
버트란트 러셀, 안정효 역, 『권력』, 열린책들, 1988.
세르주 모스코비치, 이상률 역, 『군중의 시대』, 문예출판사, 1996.
에드워드 사이드, 전신욱 역,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창, 1996.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존 K. 갈브레이드, 정성호 역, 『권력과 정치』, 우석, 1984.